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브라질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9
4. 정치	12
5. 주요산업	15

II. 무역

1. 수출입	16
2. 한국과의 수출입	25
3. 수출 유망항목	28
4. 무역협정	30
5. 수입규제 및 관세	33
6. 통관 · 물류	37

III. 투자

1. 투자환경	40
2. 외국인직접투자	47
3. 한국기업 투자	49
4. 투자진출방식	57
5. 외환	62
6. 노무	63
7. 세무	67
8. 지식재산권	69
9. 청산 및 철수	70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72
2. 비즈니스 에티켓	74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4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76

5.출입국 안내	79
6.유관기관	81
7.물가정보	84
8.출장정보	86
9.생활정보	88
10.KOTRA 무역관 안내	99
11.전시회 정보	109
	110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브라질 연방 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Brazil)
면적	8,510,418 km ² (자료원 :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2023 기준)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2,982,818명)
인구	212,583,750 명 (자료원 :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2024.7 기준)
민족(인종)	백인(47.51%,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등), 혼혈(43.42%), 흑인(7.52%), 기타(1.55%: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가톨릭(50%), 개신교(31%), 무교(10%), 기타(9%)
기후	열대성(북부), 아열대성(중부), 온대성(남부) 연평균 기온은 23~24°C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국가원수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59-10-31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발효	1963-05-21		
문화협정 발효	1967-10-20		
공동위 설립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1989-09-28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1991-11-2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1992-09-10		
과학기술 협력협정 발효	1992-12-30		
항공협정	1995-05-31		
투자보장협정 서명	1995-09-01		
정책협의회설치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1996-09-12		
관광협력협정 서명	1997-11-25		
상용, 투자 및 취재 복수사증 발급협정 서명	1997-12-25		
범죄인인도조약 서명	2002-02-01		
일반사증면제협정 서명	2002-02-01		
원자력협력협정 서명	2005-07-25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2006-02-08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체결	2010-12-16		
제2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과 브라질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간 금융지원 업무협력 MOU	2011-10-18		
사회보장협정 발효	2015-11-01		
한-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8-01-10		

한국교민 수

51,531 명 (자료원 : 재외동포청청)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18년 3월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미세우 떼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한반도 경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1월 정진석 단장이 이끄는 경축특사단이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브라질 축구선수 펠레의 빈소를 방문하였다.

2024년 5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11년만에 브라질을 방문하여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브라질 방문

2004.11 노무현 대통령
2005.06 김승규 법무부장관
2007.02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2007.07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2008.11 이명박 대통령
2009.04 정중환 국토부장관
2009.08 이상득 특사
2010.05 김형오 국회의장
2011.01 김황식 국무총리
2011.10 백재완 기획재정부장관
2012.05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2012.06 이명박 대통령(Rio+20정상회의)
2013.03 강창희 국회의장
2015.03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2015.04 박근혜 대통령
2015.07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5.07 김경환 국토부차관
2015.11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2015.12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2016.08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7.02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2017.12 임성남 외교부1차관
2018.03 이낙연 국무총리
2019.01 전해철 특사, 최인호 의원(대통령취임식)
2019.07 김무성 중남미의회 외교포럼 회장 및 원혜영 한-브 의원친선협회장 외 8명 의원
2023.01 정진석 특사(대통령취임식)
2023.11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2024.05 김진표 국회의장
2024.10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2024.11 우원식 국회의장
2024.11 윤석열 대통령

▶ 한국 방문

2001.01 Fernando H. Cardoso 대통령
2002.06 Amaral 개발상공부 장관
2003.05 Pires 감사원장
2005.05 Lula 대통령
2007.09 Marta Suplicy 관광부 장관
2008.04 Dilma Rousseff 경무장관
2009.11 Pedro Britto 항만특별부 장관
2010.06 Guido Mantega 재무장관
2010.06 Altemir Gregolin 수산양식부 장관
2010.11 Lula 대통령 및 Dilma 당선자(G20)
2012.03 Temer 부통령(핵안보정상회의)
2013.08 Jose Mucio 회계감사법원 위원(장관급)
2013.11 Aroldo Cedraz 회계감사법원 부위원장(장관급)
2014.09 Ricardo Lewandowski 연방최고법원장
2015.05 Renato Janine Ribeiro 교육부 장관
2016.09 Blairo Maggi 농축산식품공급부 장관
2017.06 Luiz Ferreira 산업개발청장
2018.05 Aloysio Nunes 외교장관
2021.03 Fontes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2021.08 Faria 통신부 장관
2023.03 Carlos Ratinho 파라나주 주지사
2023.11.23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마르시오 로사 차관

* 출처: 상파울루 총영사관 / 외교부

경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당시 한국과 브라질은 혁신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브라질 5G 인터넷 개발을 위해 한국-브라질 기업 간 협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오랜 기간을 끌어온 다자협정 도하 라운드가 협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결렬상태에 빠진 데다가, 남미 인근국이 다수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에 성공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던 자세를 바꿔 실리 위주의 양자협정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3월 브라질(메르코수르)은 한국과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감면 품목 리스트 작성 단계를 거쳐,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18년 9월에는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이후 한국과 남미를 오가며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2020년 2월 우루과이에서 제5차 협상, '21.6월 6차 협상(화상회의)', '21.8.30.~9.3. 7차 협상(화상회의)이 개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관련 협상이 진행됐다.

문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USP) 내에 중남미 최초로 한국어학도가 개설됐으며 주브라질 한국문화원은 2013년 개원 이후로 2014년 월드컵, 2016년 리우 하계 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며 한국문화가 브라질 곳곳에 보급되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상파

올루시 문화의 중심지인 Avenida Paulista 지역으로 이전하여 2019년 8월 초 개원했다.

2019년 5월 25~26일 브라질 알리안츠 파르키에서 열린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공연에서 10만 관객이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을 즐겼다. 방탄소년단 공연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발매한 지 75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기생충'과 '미나리'가 몰고 온 한국 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유지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21년 5월 8일부터 한국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미나리' 브라질 개봉을 기념해 윤여정의 출연작 '장수상회'를 상영하며, '빈센조'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된 배우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늑대소년'이 선보였다. 한국 영화 상영은 2021년 12월까지 매주 둘째·넷째 토요일에 문화원 1층 문화광장에서 오후 4시에 상영됐다.

브라질의 10월 어린이 달을 맞아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핑크퐁 원더스타'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으며 김치와 전통주가 어울린 한국 음식 페스티벌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김치전·김치볶음밥·김치만두 등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맛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또한 한국 관광에 대한 매력을 브라질에 소개하기 위해 워킹투어(walking tour) 형태로 촬영한 온라인 여행 콘텐츠 '걸어서 한국 속으로'를 선보인다. 5월 11일부터 14주간 연속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원 유튜브(Centro Cultural Coreano no Brasil)를 통해 진행되는 '걸어서 한국 속으로'에서는 경복궁 야간 산책, 한강 크루즈 유람선 투어,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경 바라보기 등 관광 명소 14곳으로 구성됐다.

2023년은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으로 기념 한복 퍼레이드, 국립국악원 초청 문화 공연, 이민 다큐멘터리 '브라질 이민일기' 상영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3.88	4.62	3	2.9	
명목GDP (십억\$)	1,480	1,670	1,950	2,170	
1인당 GDP (PPP, \$)	16,060	18,030	19,820	21,050	
1인당 명목 GDP (\$)	7,340	8,270	9,610	10,640	
정부부채 (% of GDP)	96	88.9	83.9	84.7	
물가상승률 (%)	3.21	8.3	9.3	4.6	
실업률 (%)	13.78	13.2	9.3	8	
수출액 (백만\$)	212,622	280,538	334,688	339,613	
수입액 (백만\$)	158,930	219,553	272,727	240,846	
무역수지 (백만\$)	53,692	60,985	61,961	98,767	-
외환 보유고 (백만\$)	355,620	362,204	324,703	355,034	
이자율 (%)	2	9.25	13.75	10.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5.2	5.1	5.49	5.13	

<자료원 : IMF, COMEXSTAT(브라질 무역통계사이트), 브라질 중앙은행>

나. 경제 동향

브라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5%, 2022년 2.9%, 2023년 2.9%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브라질의 농산물 및 광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원자재 수출 호황으로 브라질 경제는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브라질은 역사상 최대 수출액 339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대 무역수지 흑자 24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기 회복

에 따른 농산물 및 광물 수요가 증가하여 브라질의 원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2%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취임한 룰라 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1, 2기때 실시했던 Bolsa Familia, Minha casa Minha Vida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켰으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도 상당 부분 중지 및 보류하였다. 하지만 식량 가격 상승 및 공급망 교란은 농산물 생산대국인 브라질에게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기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13.75%까지 인상했던 금리는 2024년 5월 기준 10.75%까지 인하하여 내수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30년만에 복잡한 세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조세개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현재 하원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단계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코스트' 중의 하나인 복잡한 세금체계가 이번 조세개편안으로 단순화될 경우 외국인투자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메르코수르 공동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바, 현재 평균 13.6%인 공동관세를 점차 인하하여 절반 수준인 6.4%로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개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 대외정치 변수와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브라질 산업계의 입장 등 내부 변수가 시장개방 정책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9년 3월 발효된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버스 및 트럭, 관련 부품이 추가되었다. 당초 계획은 2020년 7월부터 버스 및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의 전면 철폐였으나, 양국은 관세 철폐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2023년 100% 철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메르코수르가 회원국 간 자동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EU와 FTA 체결 합의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에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브라질은 또한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무역장벽 완전 철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향후에도 무역 장벽 철폐,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 경제 전망

○경제성장률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호황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IMF는 2024년에는 2.9%, 2025년 2.2%로 2.1%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중앙은행(BC)은 연초 7% 대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했으나, 연료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53%(11월 27일 보고서)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연초 물가상승률을 3.91%로 전망하였으나 역사상 최저 실업률, 헤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연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4%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코로나19 기간 기준금리(Selic)를 10회 이상 연속 인상하였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 소비 진작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2023년 8월 기준 금리 13.75%에서 13.25%로 인하하였고 2024년 6월까지 10.50%로 인하하였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회, 헤알화 평가절하,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외리스크 증가 등으로 중앙은행은 9월 금리를 10.75%로 인상하였으며,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했다. 2024년 11월 현재 기준금리는 11.25%이며, 2025년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

브라질 국가지리통계청(IBGE)은 2023년 실업률이 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국가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14.2%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경기 회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기간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브라질 정부는 수출 호조,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소비 회복 등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율

코로나19 기간 1달러=5.7헤알을 기록했던 환율은 브라질의 견고한 성장세로 2023년 1달러=4.8헤알까지 떨어졌으나 2024년 대외리스크 증가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4년 11월 현재 1달러=5.7헤알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여 헤알화 평가절하를 억제할 전망이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헤알화가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브라질은 연방제, 대통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현재 브라질의 정치체제는 1988년에 전면 개정된 브라질 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1988년 연방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

1) 의회 개관

o (구성) 상원(81석, 임기 8년) 및 하원(513석, 임기 4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질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지역구별로 선출된다.
* 4년마다 대선 및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며, 상원은 4년 주기로 재적의원의 1/3 또는 2/3 교체

o (주요 권한) 상원의 경우 외교정책 검토, 주요인사 임명 승인, 전쟁선포, 해외파병, 조약 비준 등 대외 사안을 주로 관장하고, 하원은 법률제안 및 통과, 국가예산의 심의·승인 등 입법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o (정족수) 일반 법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1/2이며 예산 및 헌법 수정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5인 바, 브라질 정치 특성상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헌법 수정이 필요하여 상원 49석, 하원 308석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숫자(Numero mgico)로 평가된다.

2) 의회의 주요 특성

o (다당제 정치구조) 1979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의 기반이 마련, 현재 약 30여 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거나 기존 정당이 이합집산을 반복, 현재 원내 진출 정당만 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정당으로 정족수 충족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타 정당과의 연정 구성이 필수인 바, 이 과정에서 중도파(centro)라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o (빈번한 헌법 수정) 현행 브라질 헌법은 1988년 7차 개헌으로 구성되었으나, 각 조항이 매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125차례 수정이 이루어지는 등 주요 표결은 일반 법안이 아닌 헌법 수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22년에만 12건의 헌법 수정이 있었으며, 헌법인 재정상한제(Teto de Gasto)* 라는 경직적 예산 구조 하에서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헌법 유예가 필요하였다.
* 재정상한제 : 2016년 도입된 브라질의 재정건전화화를 위해 차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을 전년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재정의 90%가 연금 등 고정 지출로 소진되는 브라질 구조 하에서 신규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룰라 대통령은 동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속 비판하고 있다.

나. 최신동향

1) 연정 구성 현황

현재 룰라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 기반은 상원 42/81석, 하원 228/513석으로 필요 정족수에 지속 미달하고 있다.

2) 주요 현안

202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부시장), 기초자치단체의원(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 전국 시장 중 범여권 소속은 3,699명, 범야권 1,209명, 중립 662명이 당선되었다. 지난 2020년 선거 대비 이번 선거에서 룰라 現대통령의 PT당이 승리한 지역은 184→252개로 증가하였으나, 보우소나루 前대통령의 PL당이 351→517개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보우소나루의 PL당이 G103(유권자 20만 명 이상의 103개 도시)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배출(16개), 룰라 대통령의 PT당(6개)과 큰 격차를 기록하였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상파울루 시장 선거에서는 MDB당(야권)의 히카르도 누네스 現시장이 룰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PSOL당의 길예르미 보울로스 하원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2020년 대비 이번 선거는 우파 및 중도는 세력을 확장한 반면 좌파는 열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의회 지도부 교체와 룰라 정부 내각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장직은 룰라가 지지하는 안토니우 브리토(PSD)가 아닌 상대적으로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다비 알콜롬브레(Unio Brasil)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룰라 정부는 범여권 인물이 하원의장직을 차지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입법부 개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내각개편의 경우 임기 반환점인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룰라 정부는 대규모 개편보다는 제한적인 변화로 국정 동력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브라질은 남미에서 규모, 경제적으로 가장 큰 국가로 중남미 대외관계 기초를 주도해 왔다. 역사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좌파 정권이 협력하여 '핑크 타이드'를 구축하였으며, 브라질이 이를 주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 및 브라질에 좌파 정부의 집권이 확산되었다. 2000년대 초 브라질은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 탈피 시도와 함께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여 브라질 원자재의 주요 수입처로 부상하면서 양자 관계가 강화되었다. 브라질 룰라 정부의 주도 하 창설된 BRICS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중남미의 대안적인 국제질서 추진에 있어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중남미 채굴 경제의 한계를 노정하였고, 좌파 지도자들의 부패 등 실정이 부각되며 핑크 타이드는 퇴조하였다.

2023년 우파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경기침체 및 불평등 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좌파 정권이 재집권하였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미·중 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악화된 거시경제 환경으로 브라질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념적 동질성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정책 · 법령

1) 정책 기초

○ 보호무역주의, 수입대체산업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및 민영화' 이면에는 각종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발달이라는 명분 하에 자동차 사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일정 비중 이상 '국산부품 사용 의무'를 요구하는 등 수입대체 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 남미 통합 강화

브라질은 1995년 1월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프라 및 자원 투자를 제고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남미대륙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남미국가연합(우나수르)을 중심으로 남미 통합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사업과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 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에너지 확충 등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 통합

브라질은 식민 통치를 했던 포르투갈을 비롯해 유럽계, 아랍계, 아시아 계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국민성과 문화가 서로 다른 이민자가 모여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2) 외교정책

○ 국제기구 중심 다자 외교

브라질은 '유엔을 위시한 다자 국제기구는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 있는 참여 하에 유엔 안보리가 재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겪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대한 신흥국의 지분과 발언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대외경제 협력 확대

브라질 정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남남(南南)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외에도 제3세계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남남 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며,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IBSA(인도-브라질-남아공) 협력 체제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갖고 더욱 심화, 발전될 전망이다. 특히 페루, 칠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동맹 및 남미연합(UNASUR)과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경제 보완관계 구축을 시도,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최근 동향

○ 조세 개혁안 추진

30년간 추진해온 조세 개혁안이 상원, 하원 의원을 통과하였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인 IPI(공업세)와 PIS/Cofins(사회기여세), 주 세금 ICMS(유통세), 시 세금 ISS(서비스세)를 2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IVA)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여세 (CBS-Contribuição sobre Bens e Serviços)'가 기존의 IPI와 PIS/COFINS를 대체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IBS- Imposto sobre Bens e Serviços)'는 ICMS와 ISS를 대체하게 된다.

- 누진 계산 방식 종료

통합 부가세 IVA의 제정으로 그동안 기업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누진 세금 계산 방식이 마침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세 후 금액에 세금을 다시 적용하는 '누진' 방식의 세금 계산은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누진 방식의 세금 계산법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브라질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 최종 목적지에서 세금 징수

새로 제정되는 부가세는 제품의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에서 징수될 예정으로 주 정부간의 '세금 전쟁'을 종식 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의 주 정부들은 기업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기업들이 해당 주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 간 세금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 지역 개발 기금(FNDR-Fund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Regional)

조세 개혁을 통해 지역 및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보조금의 종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및 시정부를 위한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역 개발 기금(FNDR)은 연구, 프로젝트 및 인프라 공사, 고용 및 소득 창출 가능성이 높은 생산 활동 촉진, 과학 기술 개발 및 혁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2029년 80억 헤알을 시작으로 2033년 400억 헤알에 이르는 지역 개발 기금(FNDR)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동 기금은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전망이다.

- 세제 혜택 보상기금(FCBF- Fundo de Compensação de Benefícios Fiscais)

브라질 정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허가된 유통세ICMS 인센티브 및 혜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 2032년 사이 약 1600억 헤알 상당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동 재원 역시 정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 마나우스 자유지대 보조금 폐지로 인한 보상금

아마조나스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또 다른 보상 기금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동 기금은 아마존 지역 경제의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아마존 지역 경제는 마나우스 자유 무역 지대에 부여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 세율 인하

새로 제정되는 부가세 IVA는 '고정 세율'과 '인하 세율'로 구분되며 산업 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조세 제도는 9개 상품·서비스군에 대해 60%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재무부는 고정 세율을 25%로 제시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서비스
- 의료 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의료 기기
- 약품 및 여성용 생리용품
- 도로, 철도 및 수로 등을 운행하는 대중 여객 운송 서비스
- 농업, 양식업, 어업, 임업 및 천연 채소 제품
- 농업 및 수산 양식품, 식용품 및 개인 위생 용품
- 예술, 문화, 저널리즘, 시청각 제작, 스포츠 활동
- 국가 안보 및 주권,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5. 주요산업

가. 개요

브라질의 주요 산업은 농업, 제조, 광업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히 브라질은 콩, 커피, 사탕수수, 쇠고기, 가금류와 같은 식품의 생산 및 수출을 포함하는 농축산업으로 유명하다. 자동차, 섬유, 화학 및 전자와 같은 제조 산업 또한 주요 산업이다. 또한 브라질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으로, 광업, 특히 철광석, 보크사이트 및 금의 주요 생산국이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1) 농산업

브라질의 농업 산업은 중요하고 번성하는 분야이다. 대규모 생산, 다양한 작물, 수출이 특징이다. 브라질의 농산업의 주요 생산품은 대두이다. 세계 1위의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세계 식품 공급 및 동물 사료 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대한 농경지와 적합한 기후는 높은 수확량과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2023년에는 옥수수도 세계 1위였던 미국을 넘어섰으며, 콩, 닭고기, 소고기도 세계 3위 생산국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 허브'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산업은 또 다른 주요 분야다. 브라질은 주로 설탕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사탕수수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사탕수수 산업에 영향을 받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이상은 휘발유와 에탄올을 혼용할 수 있는 플렉스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브라질 농산업은 2023년에도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2024년에는 기후의 영향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2023년보다는 생산량과 수출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제조업

브라질에서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자동차이다. 1930년대 수입대체화 산업을 추진할 때부터 국가 주도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힘 써왔으며 현재도 이런 기조가 남아있어 자동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2022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세계 7위, 생산량은 세계 9위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 자동차 산업 역시 생산량이 2019년 29억 대에서 2020년 20억 대로 급감했으나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는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진출해 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전기차 전환이지만 브라질은 자국의 사탕수수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대신 에탄올 기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향후 30년간 시장의 주력 차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이외에도 소비재와 같은 경공업, 석유화학과 같은 중공업, 항공기 제작과 같은 첨단산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 브라질의 2억 1,000명에 달하는 인구와 큰 내수시장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작투자,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져 모든 제조업 분야에 브라질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3) 광업

2022년 초 러-우 사태로 러시아가 수출하던 니켈, 페로실리콘, 구리, 알루미늄 등 광물 출하가 제한되어 국제가격이 올랐고 이는 브라질 광물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침체되어 철광석·망간 등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광물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상반기 브라질 광물산업 매출·수출·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2022년 상반기 광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 9% 감소한 4억4,100만 톤이었으며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였다. 2022년 브라질 광물 매출은 철광석(60%), 금(10%), 구리(7%) 등이 주도하였다. 2023년 배터리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브라질의 희토류, 리튬, 니켈, 망간 등의 광물도 주목 받고 있으며,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브라질은 과거 수입대체산업화와 보호무역주의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아직까지도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전 세계 다수 국가들로 무역 시장을 확대하면서 자유무역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브라질은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며 對중국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브라질은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정제된 석유 제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브라질은 지리적 특성상 미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원자재를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면서 브라질의 對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브라질의 수출 상위 1위 국가는 중국이며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11%), 3위는 아르헨티나(5%) 순이다.

2023년 수입의 경우 중국이 1위(24%), 미국 2위(17%), 독일이 3위(5.7%) 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11위(2%)를 차지했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67,918,483,357
2	미국	21,880,529,633
3	아르헨티나	8,503,366,326
4	네덜란드	6,732,912,738
5	독일	4,445,914,734
6	캐나다	4,411,105,779
7	일본	4,189,767,849
8	스페인	4,089,103,039
9	멕시코	4,039,385,700
10	칠레	3,885,572,08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88,037,695,040

2	미국	32,176,551,657
3	아르헨티나	11,896,689,784
4	네덜란드	9,378,046,391
5	칠레	7,055,097,139
6	싱가포르	5,832,568,523
7	한국	5,739,101,399
8	일본	5,652,611,459
9	멕시코	5,625,244,288
10	스페인	5,458,933,156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89,972,859,509
2	미국	39,252,382,971
3	아르헨티나	15,852,039,937
4	네덜란드	11,964,022,378
5	스페인	9,811,764,637
6	칠레	9,145,944,435
7	싱가포르	8,370,510,404
8	독일	7,420,825,399
9	멕시코	7,115,534,897
10	일본	6,709,394,286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04,479,675,069
2	미국	37,986,723,353
3	아르헨티나	17,197,069,828
4	네덜란드	12,224,368,775
5	멕시코	8,605,740,127

6	칠레	8,030,425,706
7	스페인	7,960,829,868
8	싱가포르	7,459,246,165
9	일본	6,697,842,070
10	독일	6,330,411,988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6,769,557,256
2	미국	29,817,285,949
3	독일	9,865,325,038
4	아르헨티나	8,218,153,680
5	한국	4,689,807,426
6	인도	4,378,348,895
7	일본	4,342,465,298
8	프랑스	4,307,013,260
9	이탈리아	4,247,883,006
10	멕시코	4,011,867,591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53,525,139,567
2	미국	41,686,180,095
3	아르헨티나	12,413,518,015
4	독일	12,135,340,830
5	인도	7,313,625,087
6	러시아연방	6,279,036,098
7	이탈리아	5,807,935,903
8	한국	5,529,782,712

9	일본	5,504,109,645
10	프랑스	5,027,686,82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67,798,640,084
2	미국	54,418,955,162
3	아르헨티나	13,684,217,323
4	독일	13,570,348,766
5	인도	9,634,932,668
6	러시아연방	8,629,991,236
7	한국	6,017,563,286
8	이탈리아	5,907,526,558
9	일본	5,869,895,736
10	멕시코	5,603,377,492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57,074,888,613
2	미국	40,327,722,022
3	독일	13,751,577,282
4	아르헨티나	12,498,539,736
5	러시아연방	11,134,261,884
6	인도	7,181,054,098
7	이탈리아	6,093,134,514
8	멕시코	5,777,214,863
9	프랑스	5,716,173,962
10	일본	5,484,308,53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브라질은 온화한 기후와 광활한 국토로 주요 곡물, 광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원자재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 대두, 닭고기, 커피, 사탕수수 등 식량 자원이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석유 및 경질유, 염화칼슘, 암모늄 등이 있다. 브라질은 산유국이지만 생산되는 석유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염화칼슘 및 암모늄의 경우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28,560,587,859
2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4,891,584,99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740,635,892
4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7,487,219,747
5	020230	뼈 없는 것	6,665,063,284
6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971,534,598
7	100590	기타	5,786,083,439
8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5,653,391,224
9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997,882,225
10	271019	기타	4,370,945,76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2,403,908,704
2	120190	기타	38,633,195,892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676,064,849
4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8,194,508,432

5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383,459,680
6	020230	뼈 없는 것	6,959,015,263
7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6,394,851,905
8	271019	기타	6,274,503,637
9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5,835,794,643
10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5,334,318,28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47,256,038,92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2,807,476,723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6,312,537,607
4	271019	기타	12,336,869,416
5	100590	기타	12,154,574,097
6	020230	뼈 없는 것	10,918,180,539
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0,355,228,805
8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9,965,809,564
9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600,764,957
10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7,761,152,18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53,238,560,79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2,953,811,455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7,341,523,587
4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3,547,094,142
5	100590	기타	13,465,452,719

6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1,514,788,345
7	271019	기타	10,133,362,045
8	020230	뼈 없는 것	8,497,564,672
9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7,356,788,469
10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7,187,316,947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5,166,515,359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809,124,234
3	310420	염화칼륨	2,781,350,653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61,144,320
5	851770	부분품	2,669,770,762
6	300490	기타	2,480,628,951
7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2,458,294,238
8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01,054,870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럭(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032,453,142
10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872,606,19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969,087,173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974,971,812
3	310420	염화칼륨	4,634,069,207
4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4,317,531,197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093,484,412
6	271111	천연가스	3,708,165,815

7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3,279,611,296
8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3,056,957,690
9	270112	유연탄	2,972,997,737
10	271600	전기에너지	2,874,958,16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7,325,154,668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145,156,301
3	310420	염화칼륨	9,396,001,074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395,567,659
5	270112	유연탄	5,379,827,714
6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854,619,761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356,671,098
8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3,998,494,375
9	854143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3,942,278,645
10	271111	천연가스	3,572,716,205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2,517,301,18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9,382,113,744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007,235,623
4	310420	염화칼륨	5,528,250,993
5	854143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3,965,287,104
6	270112	유연탄	3,913,798,452
7	300490	기타	3,533,449,924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3,525,095,911

9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3,395,598,946
10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2,978,655,719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2023년 교역액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교역대상국 24위, 한국은 브라질의 교역대상국 11위이다. 브라질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기인 2005년부터 대 브라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역사상 최대치인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은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코로나19로 39억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브라질 경제가 회복되며, 대 브라질 수출액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유, 철광, 대두, 가금류 등 원자재가 주요 품목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다변화 목적에 따라 브라질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대 브라질 수출의 경우 2024년 브라질 기준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내수시장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 브라질 수입의 경우 2020년 이후 불거진 공급망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브라질 원자재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차전지 필수소재인 리튬, 니켈, 흑연 등의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들이 광물을 국유화하고 수출 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출 규제가 없는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0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39억 달러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 경제 활동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4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2022년의 대 브라질 수출은 49억 7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2023년 수출은 43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다.

2018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입은 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대 브라질 수입은 66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56.3% 증가했으며 2022년도는 79억 3024만 달러로 전년대비 19.8% 상승했다. 2023년은 67억 2400만 달러로 고환율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2019년까지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부터 철광석, 페로니켈, 곡물 등 원자재 수입 증가 및 국제 가격 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며,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대 브라질 무역수지는 19억 5528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은 29억 5467만 달러, 2023년은 24억 8038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3,944	4,237	-293
2021	4,666	6,622	-1,956
2022	4,976	7,930	-2,954
2023	4,344	6,724	-2,48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원동기,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철광, 사료, 박류, 가금육류 등이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854	1	852
2	7420	자동차부품	608	10	597
3	2140	합성수지	336	4	332
4	7111	원동기	223	1	221
5	2262	의약품	219	44	174
6	2261	농약	174	0	173
7	6134	아연도강판	110	0	109
8	8361	평판디스플레이	63	1	62
9	8147	의료용전자기기	98	0	97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7	3	6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024	0	1,024
2	7420	자동차부품	506	6	500
3	2140	합성수지	267	4	263
4	7111	원동기	195	1	194
5	2262	의약품	185	38	147
6	2261	농약	181	0	181
7	6134	아연도강판	121	1	120
8	8361	평판디스플레이	79	1	78
9	8147	의료용전자기기	75	0	75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7	3	5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1,568	-1,568
2	1120	철광	0	1,088	-1,089
3	0135	박류	0	621	-622
4	0136	사료	0	1,020	-1,020
5	0222	가금육류	0	423	-424
6	6181	합금철	2	275	-274
7	0151	커피류	0	228	-228
8	2511	펄프	0	270	-271
9	0113	두류	0	362	-362
10	0157	주류	1	130	-13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1,412	-1,412
2	1120	철광	0	1,076	-1,076
3	0135	박류	0	487	-487
4	0136	사료	0	369	-369
5	0222	가금육류	0	261	-261
6	6181	합금철	0	246	-246
7	0151	커피류	0	208	-208
8	2511	펄프	0	205	-205
9	0113	두류	0	173	-173
10	0157	주류	1	78	-7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반도체(메모리)

HS CODE	8542.32	수입액 (US\$백만)	4,816
수입관세율(%)	0~ 7.2%	대한 수입액 (US\$백만)	1,074
선정사유	2023년 기준 한국은 브라질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시장점유율 22%로 중국(27%)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시장동향	컨설팅 업체 IDC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쟁동향	대만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2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진출방안	엘렉트로라 쇼(Eletrolar Show) 등 남미 주요 B2B IT 가전전시회 참가를 통해 대 브라질 비즈니스 기회 발굴		

○ 화장품(스킨케어)

HS CODE	3304	수입액 (US\$백만)	173.3
수입관세율(%)	18	대한 수입액 (US\$백만)	8.8
선정사유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화장품 산업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이다. 스킨케어(HS 3304.99) 분야에서 브라질 시장은 세계 8위며 2020년 매출은 134억 헤알(약 27억 달러)에 달한다. 스킨케어 제품 연 매출은 2024년까지 매년 6% 성장해 180억 헤알(약 36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팬데믹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 수입은 2021년 253만 달러에서 2023년 876만 달러로 2.5배 이상 상승했다.		
시장동향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점점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친환경 화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쟁동향	2023년 기준 브라질의 스킨케어 제품 수입은 1억 748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75% 증가했다. 1위 수입국은 전체의 30.93%를 점유하는 프랑스, 2위 스웨덴(10.28%), 3위 미국(9.74%), 4위 스페인(9.12%), 5위 한국(5.06%)이다.		
진출방안	뷰티페어(Beauty Fair), FCE 코스메틱 에스테티카(Cosmetique, Estetica) 등 박람회 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유지' 및 '정밀한 시장분석'이 필요하다. 단, 높은 수입관세, ANVISA 등 인증비용 때문에 수입산 제품은 원가보다 2~3배 비싸질 수 있으며, 브라질 로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및 제품성능 향상이 필요하다. 참고로, 록시땅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은 브라질의 천연 화장품 원료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브라질 내 공장을 설립하였다.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게임 서비스

선정사유	브라질 게임 시장은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Comscore의 디지털 게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전자 게임 시장은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8,400만 명이 전자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월평균 9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동향	코로나19 이후 브라질에는 전자 게임(Electronic Game)을 즐기는 인구가 대폭 늘어났다. 전자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힘입어 E-sports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다. E-sports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이나 심지어 프로축구 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현재 브라질 대형 채널에서는 프로게이머가 참가하는 국내외 대형 이벤트가 생중계되는 등 나날이 E-sports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쟁동향	콘솔 게임의 경우, 일본의 Nintendo의 Nintendo Switch와 Sony의 PS4, 그리고 Microsoft사의 XBox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은 게임 콘텐츠를 배포하며 진출하였으며, 배틀그라운드, 서머너즈 워, MMORPG 장르의 게임이 많이 진출했다.
진출방안	브라질 현지 게임 회사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 Steam과 같은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게임 시장과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 콘텐츠(애니메이션)

선정사유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동향	브라질에는 테마파크나 놀이시설이 많지 않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브라질에도 어린이용 캐릭터가 있으나 디자인이나 내용이 진부한 편이며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부모나 어린이가 함께하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동향	디즈니 만화 영화 캐릭터 등 다수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다양한 상품에 도입되고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는 Jurassic Park를 캐릭터를 사용한 햄버거 레스토랑이 개업했는데 공공 체험과 햄버거를 먹기 위해 많은 소비자가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방안	브라질 방송 채널에 콘텐츠 공급을 통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과 협업하여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공간 구축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브라질-우루과이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우루과이	1983-06-20	1985-10-16	기체결(발효 중) *ACE02
메르코수르- ALADI 관세특혜 협정	메르코수르, ALADI	1984-04-27	1984-07-01	기체결(발효 중) *APTR04
브라질-아르헨티 나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아르헨티나	1990-12-20	1990-12-20	기체결(발효 중) *ACE 14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 칠레	1996-06-27	1996-10-01	기체결(발효 중) *ACE 35
메르코수르-볼리 비아 경제보완협 정	메르코수르, 볼리비아	1996-12-17	1997-02-28	기체결(발효 중) * ACE 36
메르코수르-팔레 스타인 자유무역 협정(FTA)	메르코수르, 팔레스타인	2011-12-20		미발효
브라질-멕시코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멕시코	2002-09-23	2003-05-02	기체결(발효 중) * ACE53
메르코수르-멕시 코 경제보안(자 동차) 협정	메르코수르, 멕시코	2002-09-27	2003-01-01	기체결(발효 중) *ACE 55
브라질-기이아나 -세인트크리스토 퍼 네비스 경제 협정	브라질, 기이아나	2001-10-29	2004-05-31	기체결(발효 중) *AAPA25TM38, PSA(Partial Scope Agreement)
메르코수르-콜롬 비아/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경 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콜롬비아, 에콰도르/베네 수엘라	2004-10-18	2005-02-01	기체결(발효 중) *ACE 59
브라질-수리남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수리남	2005-04-21	2006-07-26	기체결(발효 중) *AAPA25TM41
메르코수르-이스 라엘 자유무역협 정(FTA)	메르코수르, 이스라엘	2007-12-18	2010-04-28	기체결(발효 중) * FTA
메르코수르-페루 경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페루	2005-11-30	2006-02-06	기체결(발효 중) *ACE 58
메르코수르-쿠바 경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쿠바	2006-07-21	2003-07-02	기체결(발효 중) * ACE 62

메르코수르- SACU 무역특혜 협정	메르코수르,SACU	2008-12-15	2016-04-01	기체결(발효 중) * ACP
메르코수르-인도 무역특혜협정	메르코수르,인도	2004-01-25	2009-06-01	기체결(발효 중) * ACP
메르코수르-이집 트 자유무역협정 (FTA)	메르코수르,이집트	2010-08-02	2017-09-01	기체결(발효 중) * FTA
메르코수르-콜롬 비아 경제보완 협정	브라질,콜롬비아	2017-07-21	2017-12-20	기체결(발효 중) * ACE 72
메르코수르(회원 국간 경제보완협 정)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파라 과이	1991-11-29	1991-11-29	기체결(발효 중) * ACE18
브라질-파라과이 자동차 무역 협 정	브라질, 파라과이	2020-02-11	2020-09-28	기체결(발효 중) * ACE 74
브라질-베네수엘 라 경제보완협정	브라질,베네수엘라	2012-12-26	2012-12-31	기체결(발효 중) * ACE 69
메르코수르-멕시 코 경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멕시코	2003-02-18	2006-01-01	기체결(발효 중) * ACE54
메르코수르-싱가 포르 자유무역협 정(FTA)	메르코수르,싱가포르	2022-07-20	2023-12-07	기체결(발효 중) * FTA

<자료원 :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협정 종류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메르코수르-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	2005년 12월 아르헨티나 Mar del Plata 정상회의 이후 중단되었 다.	
메르코수르-GCC 경제보완협정	GCC	현재 협상 재개 준비 중이다.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6개국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 (FTA)	EU	협상에 가장 큰 문제가 되던 아마 존 보호 관련 내용이 틀라 정부의 환경보호 기조와 일치하면서 2023년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었 으나, 타결되지는 않았다. 현재 논 의가 지속되고 있다.	

메르코수르-SACU-인도 무역특혜 협정	SACU, 인도	2007년 10월 제2차 인도-브라질-남아공 정상회담 시 롤라 대통령이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다.	SACU: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등 5개국
메르코수르-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캐나다	2010~2012년 메르코수르-캐나다 FTA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6년에 협상 공식 선언하였다. 2018년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차 협상이 열린 이후 추가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무역협정(TA)	한국	2018년 9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이후 2019년 7월 제3차 협상, 2020년 2월 제 5차 협상, 2021년 6월 6차 협상(화상회의), 2021년 8월 7차 협상(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가장 최근에 열린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관련 협상이 진행되었다. 2023년 출범한 룰라정부는 메르코수르의 FTA 체결에 긍정적이며 EU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EU와 타결 시 한국과의 FTA 체결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부와 브라질 산업서비스부(MDIC)는 양국 간의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자 2023년 11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2차 회의를 계획중이다.
브라질-미국 무역협정	미국	2020년 10월 미국과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에너지,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ATEC-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추후 양국간 FTA 체결도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통상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브라질은 2011년부터 미국과 경제협력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나 담보 상태에 빠져있었음.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으로 2019년 3월 협상을 재개함.	

<자료원 :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54023111,54023119,54024520	나일론사(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반덤핑(규제중)	한국, 중국, 대만	○ 부과기간 : 2019.12.23 ~ 2024.12.23	○ 판정결과· 한국 : US\$77.85 ~ US\$3,224.91 / t· 중국 : US\$0 ~ US\$2,409.11 / t· 대만 : US\$0 ~ US\$1,629.18 / t
2	40025900	니트릴 고무(NBR)	반덤핑(규제중)	한국, 프랑스	○ 부과기간 : 2018.8.13 ~ 2029.8.9	○ 판정결과· 한국 : US\$0.15 ~ US\$0.34 / Kg· 프랑스 : US\$ 0.20 ~ 0.97 / Kg* 2024.8.9 : 일몰재심 후 규제연장 결정 (~2029.8.9)
3	40112090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반덤핑(규제중)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 부과기간 : 2021.3.22 ~ 2026.3.22	○ 판정결과· 한국 : US\$0.32/kg ~ US\$1.49/kg· 일본 : US\$0.21/kg ~US\$1.59/kg (규제 중단)· 러시아 : US\$0.72/kg ~ US\$1.10/kg· 태국 : US\$0.53/kg ~ US\$0.55/kg

4	40111000	승용차용 타이어(Tire)	반덤핑(규제중)	태국, 대만, 한국	○ 부과기간 : 2020.1.16 ~ 2025.1.16	○ 판정결과· 태국 : US\$1.32 ~ US\$1.35 / Kg · 대만 : US\$1.43 / Kg · 한국 : US\$0.14 ~ 2.56 / Kg(규 제 잠정 중단 상 태, 규제종료는 아님)
5	72251900,72261900	압연실리콘철강(Flat- rolled product silicon steel)	반덤핑(규제중)	한국, 중국, 대 만	○ 부과기간 : 2019.7.15 ~ 2024.7.15	○ 판정결과· 한국 : US\$132.50 ~ US\$166.32 / t · 중국 : US\$90.00 ~ US\$166.32 / t · 대만 : US\$90.00 ~ US\$166.32 / t* 일몰재심중 (2024.7.15~) , 재심기간 현 규제 유지
6	72085100,72085200	평판압연제품(후판) (Heavy Plate Steel)	반덤핑(규제중)	남아공, 중국, 한국, 우크라이 나	○ 부과기간 : 2019.10.2 ~ 2024.10.2	○ 판정결과· 남아공 : US\$166.63 / t (부과 유예)· 중국 : US\$211.56 / t · 한국 : US\$135.84 / t · 우크라이나 : US\$52.02 / t

수입금지품목

과거에는 자유수입, 사전 수입 승인, 수입 금지로 구분했으나 2006년을 기준으로 분류 방법이 변경됐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는 DECEX(대외교역국)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무역관세집(Tarifa Externa Comum: TEC)에서 해당 품목 옆에 'E'라는 표시와 함께 하단에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에는 품목 옆에 'P'라고 표시했다.

수입금지는 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이며 수입금지 품목 수는 많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품으로 중고차, 의류 등의 국내 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 중고 기계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브라질 정부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중고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반덤핑 규제 품목: 2024년 5월 기준 브라질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5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다.

- 니트릴 고무(NBR) HS Code 4002.59.00

- 버스 및 트럭 용 타이어(Pneumatic Tires for Trucks a and Buses) HS Code 4011.2090

- 승용차용 타이어(Tire) HS Code 4011.1000 * 현재 대 한국 규제는 2025년 1월 16일까지 중단된 상태

- 나일론사(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HS Code 5402.3111 / 5402.3119 / 5402.4523
- 평판 압연 제품 중 후판(Heavy Plate Steel) HS Code 7208.5100 / 7208.5200
- 압연 실리콘 철강(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HS Code 7225.1900
- (수입쿼터) 철강제품 11개 품목 HS Code 7210.61.00 / 7210.49.10 / 7209.16.00 / 7209.17.00 / 7208.37.00 / 7208.38.90 / 7208.39.10 / 7208.39.90 / 7213.91.90 / 7305.11.00 / 7305.12.00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

1997년 1월 브라질 대외무역국(SECEX)은 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SISCOMEX)을 도입해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수입 허가 현황은 SISCOM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한 행정규제

1998년 10월부터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 o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품목 확인 주소(허가 담당기관 및 관련 규제 확인 가능):

<http://www.siscomex.gov.br/informacoes/importacao/tratamento-administrativo-na-importacao/> 접속 후 Tratamento Administrativo Anuente Web / Tratamento Administrativo de Portal Unico 클릭

3) 통관지연

1998년부터는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수입허가 불가 제품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범위를 넓혔다. 비록 자동수입허가(Licença Automtica)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다.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는데 의심이 가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건부의 제품 등록기간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 위생감시국(Anvisa)에 제품 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ANVISA 허가 취득기간의 경우, 제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TBT

1)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2) 전기 전자 및 IT 제품 통관 시 브라질 지식재산권협의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과정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지나쳐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된다.

3) 브라질 도량형 및 품질 관리기관인 INMETRO를 통해 독자적인 자동차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제표준을 받은 자동차 타이어 업체 및 수입업체에 부담을 준다.

4) 유사상품 존재 시 수입승인을 못 받는 등 IT 제품에 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5)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준 적용,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 인증비용 과도책정 등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

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원자재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사용해 전반적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일정 비율이 상의 국산부품 이용법: PPB 존재)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무역 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Code와 마찬가지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 Code)은 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외무역 공동관세 과세 기준

-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증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거래될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수입 관세(I.I.)는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돼 있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11년에 10.6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는 10.2%(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다. 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진 수준이나 아직도 독일이나 영국(1.9%), 미국(2.9%)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러시아(6%), 중국(8%) 등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나 반가공품은 완성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 보우소나루 정부는 브라질 관세가 타국에 비해 높은 것을 인지하고 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II) 및 공업세(III)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202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현재 개인 간 50달러 미만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수입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 중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 대외 무역 공동관세 열람

- 사이트 : <https://www.mercosur.int/politica-comercial/ncm/>

- 특정 품목의 관세 및 부가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파울루무역관으로 문의하면 TECWIN(세금 정보 유료 사이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6. 통관·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브라질행 화물은 주로 산토스항을 통해 브라질로 들어온다. 브라질로 들어온 화물의 대부분은 트럭 등을 이용해 내륙지역으로 운송된다. 브라질의 주요 항구로는 산토스항(상파울루주), 파라나과(파라나주), 이타포아(산타 카타리나주), 포르토나비(산타카타리나주), 히우그란지(히우그란지주) 등이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3년 기준 브라질 최대 무역항인 산토스항의 물동량은 총 1억 7,3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선적량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억 3,0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하역량은 총 4,330만 톤을 기록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브라질의 주요 국제공항은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등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은 상파울루 주 인근 도시에 위치한 과룰류스국제공항(GRU)이다. 그 밖에도 브라질리아의 브라질리아 공항(BSB), 상파울루 시내에 위치한 콩고냐스공항(CGH), 캄피나스시에 위치한 비라코뿌스공항(VCP), 리우 데 자네이루의 산토스드몽 공항(SDU) 등을 주요 공항으로 꼽을 수 있다.

◦ 승객 및 운항 정보: 브라질 과룰류스 공항은 2023년 한 해 동안 275,000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있었으며, 공항 이용객 수는 4130만 명을 기록하여 브라질 공항 중 1위를 차지했다. 콩고냐스 공항의 이용객 수는 185만 명, 브라질리아 공항의 이용객 수는 121만 명, 비라코뿌스 공항 이용객 수는 107만 명, 산토스드몽 이용객수는 100만 명으로 집계됐다.

3) 유의사항

브라질의 경우 공항·항만 시스템의 비효율성, 철도인프라 미비,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작은 세관 파업 등 낙후한 물류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대부분의 항구는 화물의 야적장 보관에 대한 무상 기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통관 후 반출될 때까지 보관된 기간만큼 각 터미널의 요율 체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특히, 세관이나 공항·항만노조 파업 기간에는 항구 CY와 공항창고 통관이 장기간 지연돼 상당한 PORT 부대비용 및 컨테이너 체화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노조나 세관 공무원의 파업 조짐이 보일 경우 되도록 공공항구나 공항보다는 상대적으로 항만 노조의 영향력이 덜하고 세관원의 파업 동참률이 낮은 내륙의 사설 보세창고로 이동해 통관하는 것도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2022~2023년 기후변화로 인해 북부 마나우스 가뭄, 남부 대홍수로 인해 물류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최근 브라질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수량이 샘플 정도의 수량이거나 수량이 적을 때, 또는 세법상의 금액을 약간 초과했으나 인수화물로 통관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약식통관은 간단한 수출입 신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신고서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필요할 경우 정부의 통제, 환율규제 등이 적용된다.

2) 정식통관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을 적용받게 되며, 내국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를 통해서 하며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 제품세(I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브라질 국제무역부(D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들은 선적 전에 브라질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수입허가서(LI)를 취득해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중고품, 샘플, 기부품 등 무가상품, 연구용품, 군수품, 방사능 물질, 원유, 원유가공품, 환경 유해물질, 항공기, 백색가전 완제품 등) 들은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행정조치표'에 열거돼 있다.

3)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세관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 채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자가 연방세무소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Verde(녹색채널)

- 자동통관 채널이다.
- 전시회를 비롯해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이다.

○ Amarelo(황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를 검토한다.

○ Vermelho(적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및 반입품을 검사한다.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 Cinza(회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반입품을 세밀히 감정한다.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4) 통관절차 흐름

수입상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서 통상적으로 공인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을 의뢰하게 된다. 세관에 등록된 공인 통관사는 수입상으로부터 변호사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상을 대신해 수입품의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수입품이 도착하면 수입상을 대신한 통관사가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서류 수취(통상적으로 2일 정도 소요됨) 한다.
- 도착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통관사는 해상운송기금(해상 운송료의 25%)을 납부하고 관세 산정 및 통관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 그 다음 날에는 세관 창고료를 납부하고 세관에 다음날 실시될 수입품 검사 시간을 예약한다.
- 최종일에는 수입품 검사 및 산정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품을 통관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 송장: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했음을 밝히는 명세서이다.
 - 선하증권: 선주와 화주가 화물을 해당 선박에 적재했거나 적재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시해놓은 유가증권을 뜻한다.
 - 패킹리스트: 상업 송장, 선하증권과 같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 상업 송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포장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패킹리스트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업송장 (C/I)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500헤알이 부과된다.

-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의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 브라질 통관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는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 업체나 한인 통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Turbo Cargo Brasil

주소	Av. Pres. Juscelino Kubitscheck de Oliveira, 660 - 46 - Centro, Sorocaba - SP, 18035-060
전화번호	(55-11) 2283-2439
이메일	contato@turbocargo.com.br
홈페이지	http://turbocargobrasil.com.br

○ Star Cluster do Brasil Logistica

주소	Rua Jandiatuba 143, Sala 901, Vila Andrade, CEP 05716-150, Sao Paulo-SP,
전화번호	(55-11) 2387-2484
이메일	scl_brz_admin@starcluster.com.br
홈페이지	http://www.starcluster.com.br/
비고	Star Cluster사의 홈페이지는 브라질에서는 접속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정책

브라질은 1962년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 4131호(Lei 4131)에 의거하여 외국 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분야는 법에 차별대우의 근거와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으며,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고, 하위 법으로 주와 브라질리아 특구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법의 내용은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으며 각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고, 시도 각각의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Invest & Export Brasil'이라는 투자 수출 촉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브라질 국내 및 해외의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교부(MRE), 산업통상서비스국(MDIC), 농축산부(MAPA)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 Invest & Export Brasil(<http://www.investexportbrasil.gov.br/>)

브라질 정부는 APEX Brasil(브라질 무역투자청)를 통해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 APEX Brasil(<https://portal.apexbrasil.com.br/>)

2)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연방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자본과 내국자본과의 동등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제한이나 특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1971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가능하며, 비 거주 외국인이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브라질의 일간지 Valor에 따르면 1993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기존 50Module만 소유 가능했던 농지가 이후 100Module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이전까지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브라질 국적의 기업들 중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간 브라질 기업 또한 토지 소유에 대한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다.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이다.

- ① 자본재, 기계, 설비를 통한 직접투자
- ②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③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④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투자인센티브

1) 조세 감면

정부 인센티브 방식은 주로 조세 감면(Tax Reductions & Exemptions) 등의 형식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대출(Subsidised-Rate Loan Financing) 등이며, 현금지원 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연방 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수출 증대,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원조 등 간접적인 투자인센티브의 형태를 띤다. 금융자원이 부족한 탓으로 원칙적으로 현금 원조보다는 대출금리의 특별인하(Subsidized-Rate Loan Financing)나 조세감면(Tax Exemptions & Reductions)의 형태를 보이며 공장 건설이나 기계 구매 등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다.

○ 소득세, 사회 기여세(PIS/COFINS) 조기 환급

- 기계 구입 시 납부한 PIS/COFINS를 12개월 걸쳐 분할 환급(과거에는 세금 납부액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부여해 납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용 유도), 영구조치

○ 수출업체 대상 자본재 구입 시 조세 감면(RECAP)

- 수출업체가 국내시장 또는 수입을 통해 신규 기계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 혜택
- 동 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혜자격(국세청에 등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면세 혜택

○ IT, 반도체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 시, 또는 자본재 구입 시, 기술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해외 송금 시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IRPJ), 공업세, 사회기여세 등 감면 혜택

○ 국내 생산 없는 기계 장비 대상 수입세 감면(*남미 공동 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rios))

- 자본재, 컴퓨터 정보 통신 제품 수입세 일시 감면: 14% → 2%
- 수혜 조건은 해당 품목의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어야 하며 국가 산업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품목이어야 함.
- 유효기간은 적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 소규모 업체 대상 조세제도 간소화(Simples Nacional)

- 초소업체(ME) 또는 소규모 업체(EPP)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세(CSLL, PIS, COFINS, IPI, INSS), 주세(ICMS), 시세(ISS) 등을 통합해 간소화.

○ IT 제품 관련 인센티브(Lei do Bem)

- R&D 업종 지출 경비에 부과되는 CSLL(사회기여세) 감면, R&D 용도로 기계 장비 구입 시 공업세 감면, 기술 이전 관련 소득세 감면

2) R&D 사업 지원: 기술혁신인센티브(INCENTIVOS À INOVAÇÃO TECNOLÓGICA)

브라질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세계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혁신 인센티브제도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1) 산학협력, (2) 과학기술연구원들이 기술혁신과정에 좀 더 참여하도록 하는 것, (3) 기업이 기술혁신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인센티브는 산학협동을 통한 R&D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부의 정책과 중복되기도 한다. 기술혁신인센티브제도는 기술혁신법(Lei de Inovação), 연구개발 촉진법(Lei de Bens), 정보진흥법(Lei de Informtica)가 서로 연계돼 운영된다.

3) 브라질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수출기업, 특별 장려산업, 저개발지역 투자 등의 경우에 제공된다.

○ 일반적인 투자 인센티브

- 하이테크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연구개발에 수익의 5% 이상 투자하면 이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구매 시 공산품세(IPI)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산업별 투자 인센티브

- 브라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우선산업은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제지, 어업, 임업, 관광업 등이며, 정보통신업종은 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북부 아마존지역, 북동부 저개발지역,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무역지대(ZPE)로, 연방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해주거나, 주(州) 유통세(ICMS) 일부를 용자해 주기도 한다. 투자 장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 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저개발 지역으로 고급인력이 거의 없어 단순조립 산업 등에만 적합하다.

○ 수출 장려 인센티브

- 수출가공무역지대(ZPE)에 입주한 기업은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사회보장기금세, 금융거래세, 상인해상운송개항세 등을 면제받고,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가 운영하는 투자정보 시스템 RENA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4)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외국 투자기업에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ICMS(유통세), ISS(서비스세), IPTU(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이다. 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투자지역 시정부와 접촉해 감면율, 인센티브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조율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시정부 재량으로 지급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후보지 시정부 투자 담당관을 찾아 인센티브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Piracicaba시의 경우는 시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업체에 기본적으로 토지 무상 제공, IPTU(토지가옥세) 면제, 공장 건축 기간 중 ISS(서비스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정확한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시정부로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 투자 형태: 단독투자

○ 투자 지역: 상파울루주 베라시까바시 이따빠루 지역

○ 사업 내용: 라이신(사료 첨가제) 생산

○ 착공일: 2006년 3월 21일, 현재 가동 중

○ 투자내용

- 투자 규모: 공장 건축 2억 1,300만 헤알, 2015년까지 총 5억 달러 투자(자본금: 6000만 달러)

- 입지: 상파울루 주 베라시까바시 이따빠루 지역, 제랄도 바호스 고속도로(SP-304)와 8분 거리

- 공장 건설기간: 약 18개월(연인원 1,400명, 2007년 9월 완공)

- 고용 규모: 1차 약 250명, 2015년까지 총 2,000여 명

- 공장 규모: 대지 98만㎡, 건물바닥 면적 약 5만㎡

- 생산물: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지나(lisina)를 연 5만 7,700톤 생산(사탕수수에서 채취)해 조류와 돼지들의 사료로 판매될 예정. 영업 첫해 매출 목표는 1억 달러이며, 이 중 70%를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임.
- 이 공장은 CJ의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과 함께 CJ의 전 세계 82개 지사 중 세계 3대 바이오 거점이며, 생산 규모는 CJ 중국 공장과 비슷한 하루 170카트(Carreta) 수준임. 모든 생산품은 산토스 항구를 통해 운반됨.
 - 투자 인센티브
 - 주정부는 투자 인센티브와 판매 전략에 협조를 약속하고, 고속도로에서 공장 지역까지 약 175만 달러를 들여 약 3km 구간을 고속도로화. 또한, 공장 가동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회사(comgas)는 약 2,200만 헤알을 들여 19km에 달하는 가스송수관 공사를 실시.

제한 및 금지(업종)

원칙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투자제한 분야는 국내 텔레그래프 및 우편 사업, 원자력, 수력, 지열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으로 여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분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은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분야이다.

- 지하자원, 광산, 기타 광물 자원 및 수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 투자를 위해서는 자원 에너지부 (Ministerio das Minas e Energia)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 연방정부의 독점사업분야임.
- 항공·우주산업
 - 연방헌법상 외자 참여 금지
- 핵 에너지개발
 -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돼 있음.
- 연안수상운송업
 - 브라질에서 건조돼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 언론 분야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사 자본과 의결 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 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 케이블 TV
 -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 허용
- 농목업이나 산림 소유 및 국경지대
 -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해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709호(1971.10.7.)
- 국내 항공운송업
 -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됨.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브라질 시민이어야 함.
- 육상화물운송(Road CargoTransportation)
 - 육상화물 운송회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 금융업
 -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나 2018년 핀테크 분야 투자는 규제가 대폭 완화됨.
- 우편·전보서비스
 - 연방헌법에(헌법 제21조X) 연방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규정
- 보험
 - 1996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 보건서비스 분야
 - 연방헌법(제199조 3항)에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2015년부터 허가됨.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마나우스 산업단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한 서부 아마존 지역은 아마조나스(Amazonas), 아끄레(Acre), 혼도니아(Rondonia), 호라이마(Roraima) 등의 4개 주로 구성돼 있다. 각 주의 수도는 마나우스(Manaus), 리우브랑구(Rio Branco), 포르투벨루(Porto Velho), 보아 비스타(Boa Vista)인데, 이 중 마나우스는 동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법령 no 356/68과 법령 8.387/91을 통해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는 1990년 시장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최대 공업지대였으나, 원거리에 따른 물류비용과 경기둔화로 한동안 침체돼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경기 회복과 함께 마나우스 지역 투자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공업, 농축산업, 상업 등 3개의 대형 전문 산업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공업단지의 경우 현재 각종 첨단 기술을 보유한 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수입 관세 및 공업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오토바이, 해운, 생활용품 등 관련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다수의 정보통신제품 업체도 입주해 있다. 브라질 최대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조세특혜 제도는 연장된 종료 시기였던 2023년에서 다시 50년이 연장돼 2073년까지 발효되었다. 종전 특별법의 시효는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성숙기를 거쳐야만 하는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 도입과 다각화가 현실화되지 못해 특별법 시효의 연장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국 Sufram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주업체 정보를 비롯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www.suframa.gov.br

- 주소: Av. Ministro Mario Andreazza, 1.424 - Distrito Industrial, CEP. 69075-830 - Manaus Amazonas

- TEL: (55 92) 3321-7000

○ 주요 혜택: 투자 인센티브는 SUFRAMA와 SUDAM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 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 정부의 인센티브 및 마나우스 시의 인센티브로 나뉜다. 감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한다.

○ 연방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는 수입 관세(II), 공산품세(IPI), 소득세(IR),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NFINS)의 감면으로 구성된다.

① 수입세(Imposto sobre Importacao - I.I.)의 감면

- 자본재를 포함한 외국산 상품이 내부소비를 위해 ZFM에 유입될 경우

- Amazonia Ocidental로 유입되는 합동부처령(Portaria Interministerial) 제300호(1996.12.20.)에 열거된 외산 제품에 대해 I.I. 면제

- 국내 판매를 위해 ZFM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중간재, 포장재 등의 수입 시 88% 수입세 감면

- 일정 요건을 갖추는 정보재의 생산 시 수입관세의 감면

- 일정 요건을 갖추는 자동차생산의 경우 수입 관세의 감면

② 공산품세(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ndustrialised Product Tax)의 감면

- ZFM 생산품에 대한 IPI 면제

- ZFM에서 소모하는 외산품(자본재 포함)의 경우 I.P.I. 면제

- Portaria Interministerial n° 300/96에 열거된 외산품으로서 Amazonia Ocidental에서 소모되는 제품에 대해 I.P.I. 면제

- ZFM와 기타 Amazonia Ocidental에 유입되는 국산품에 대해 I.P.I. 면제

- Amazonia Ocidental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목원자재와 식물추출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I.P.I. 면제

③ 법인소득세(IRPJ- Imposto de Renda de Pessoa Juridica; Income Tax)의 감면

- 법인소득세에 대해 최대 75%까지 감면. 그러나 이득에 대한 사회기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이러한 조세감면을 자본유보(capital reserve)로 장부에 기입해야 하며 배당금(dividends)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회기여세(PIS/PASEP: SOCIAL INTEGRATION PROGRAM)와 사회보장세(COFINS: SOCIAL SECURITY FINANCING

CONTRIBUTION) 감면

- 수입품과 기업 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PIS/COFINS를 면제한다. 역외지역에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3.65%(예외 있음)를 적용한다.

⑤ 수출세(Imposto sobre Exportacao- I.E.)의 면제

- ZFM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의 면제

○ 주 인센티브: 주에서 부여하는 조세 인센티브는 주 유통세(ICMS State Service Tax)를 경우에 따라 55~100%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세 환급의 대가로 일정액의 교육 관광 진흥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 시 인센티브

- 10년간 건물. 토지세(IPTU- Imposto sobre a Propriedade Predial e Territorial Urbana) 면제

- 10년간 도시 정화 및 공공물 보존료 면제

- 10년간 사업 허가료 면제

○ 브라질 정부, 마나우스 산업단지 세금 인센티브 범위 확대 법안(10,521호) 서명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0년 10월 마나우스 산업단지 세금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마나우스 산업 단지에 투자진출하는 기업들은 공업세(IPI)를 면제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입세(II) 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됨.

산업단지

○ 마나우스 산업단지

규모	10,000 km ²
위치	Av. Ministro Mario Andreazza, 1.424 - Distrito Industrial, CEP. 69075-830 - Manaus - Amazonas
임차료	업종별로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국 (SUFRAMA-Superintendência da Zona Franca de Manaus)○ 전화: (55 92) 3321-7000○ 홈페이지: https://www.gov.br/suframa/pt-br

<자료원 : SUFRAMA>

주요 지역별 여건

○ 상파울루(SAO PAULO)주

- 면적: 248,222km²

- 인구: 44,4만 명(2022년)

- 주도: 상파울루(Sao Paulo)

- 투자기구: 상파울루 주 무역투자청 Investe Sao Paulo (<https://www.investe.sp.gov.br/>)

-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금융업, IT 산업

- 비교: FIDES(Fundo Estadual de Incentivo ao Desenvolvimento Social) 사회발전촉진기금/ FIDE(Fundo Estadu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경제발전촉진기금/ 최대 거치 10년에 12년 상환, 연리 5%의 금융

○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주

- 면적: 43,780.172km²

- 인구: 16,054,524명(2022년)

- 주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 투자기구: 리우 무역 투자 청 AgeRio (<https://www.agerio.com.br/institucional/>)

- 주요 산업: 농산업, 가죽가공, 전자, 석유화학 등

- 비교: 금융·조세 인센티브, 기타 산업 분야별 인센티브, 조세 인센티브, 주령 제23012/97호, 주령 제24937/98호

○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

- 면적: 586,522.122km²

- 인구: 21,322,691명(2024년)

- 주도: 벨로오리젠티(Belo Horizonte)

- 투자 기구: 미나스제라이스 무역투자기관 Invest Minas (<https://www.investminas.mg.gov.br/>)

- 주요 산업: 광물, 제철, 섬유, 비철, 농목업,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 화학, 전자, BT, 정밀기계, 반도체 산업 육성 등

- 비교: FIND(Fundo de Incentivo Industrialização) 산업촉진기금, PRO-INDSTRIA(주령 제38106/96호), PROIM(주령 제 38106/96호), FUNDIEST(O Fundo de Desenvolvimento de Indstrias Estratégicas) 전략발전기금, PROE-INDSTRIA(주령 제 40848/99호), PROE-AGROINDSTRIA(주령 제41840/01호), PROE-ELETRÔNICA(주령 제41021/00호)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미주 주요국의 2021년 對브라질 투자액을 보면 미국(130억 달러), 캐나다(15억 달러), 칠레(12억 달러), 멕시코(1억 달러), 아르헨티나(6000만 달러) 순서였다.

유럽은 브라질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2021년 양국 교역규모는 990억 달러에 달한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이 브라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브라질의 주요 투자국이나, 투자금이 타 국가를 경유하여 유입되는 건이 많아 브라질 중앙은행 통계에 조회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한편, UNCTAD 기준, 2022년 브라질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약 860억 달러로 팬데믹으로 투자가 저조했던 2020년(283억 달러)과 2021년(504억 달러)에 비해 투자액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OECD 에 따르면 2023년 브라질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640억 달러이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미주 주요국의 2021년 對브라질 투자액을 보면 미국(130억 달러), 캐나다(15억 달러), 칠레(12억달러), 멕시코(1억 달러), 아르헨티나(6000만 달러) 순서였다. 미국은 농업, 금융, 화학, 광업, 제약,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수십 년 전부터 브라질에 터를 잡아 매년 직접투자액이 타 미주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 기업들도 브라질의 자원·큰 내수시장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브라질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광물·인프라·금융, 칠레는 셀룰로오스·제지·유통 관련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유럽은 브라질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2021년 양국 교역규모는 990억 달러에 달한다. 유럽 회사들은 전력·통신·금융·소비 등 브라질 기간산업을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다. 자동차·기계·제약·화학 등 소비재나 산업재 부문에서도 유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 기업들은 브라질 해상유전 개발 및 화력발전소·바이오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2007~2020년 간 중국의 對브라질 직접투자액은 661억 달러였으며, 투자 프로젝트 개수는 176개에 달했다. 투자 분야별 비율로 보면 '전력·가스 등 유틸리티(48%)', 천연가스·원유 개발(28%), 광물 개발(7%), 제조업(6%), 인프라 건설·운영(5%), 농축산업(3%), 금융 서비스(2%) 순이었다. 중국은 브라질 내 전력자산, 원유·천연가스 광구를 대거 인수하고 있다.

일본의 對브라질 직접투자액은 2014년 37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매년 10~20억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 일본 기업들은 1950년대 중순 브라질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식품기업 아지노모토(Ajinomoto)는 1956년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950년대 일본 철강기업들은 아르헨티나·브라질 기업들과 브라질에 철강회사 우시미나스(Usiminas)를 설립하여 자동차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60년대 말 이후에는 인프라·전자·정보통신 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였는데, 1968-1975년 간 일본 기업 200개 이상이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할 정도였다. 당시 일본 중이·펄프회사 JBP는 브라질 발리(Vale)와 협력하여 합작법인 CENIBRA를 설립했다. 정보통신 회사 NEC도 브라질에 진출했다. 2000년대 넘어서 일본기업들은 광물·인프라·식량 등 분야에 대거 진출한다. 특히, 마루베니, 미쓰이 등 일본 종합상사들은 광산·합금·인프라·제지 등 분야에 대거 투자했다.

싱가포르의 對브라질 직접투자액은 2012년 1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매년 2~8억 달러 규모로 집계된다. 브라질에 진출한 싱가포르 회사로는 창이공항, 케펠오프쇼어(Keppel Offshore), 주롱조선소(Jurong Shipyard), 브라셀(Bracell),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對브라질 진출은 전자회사들이 1990년대 이후 마나우스, 타우바테, 캄피나스 등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피라시카바 등지에 공장을 세우면서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의료기기·제약회사들도 브라질에 많이 진출하였고 화학·농업·핀테크 등 회사들도 합작·인수합병을 통해 브라질 사업을 시작하였다. 브라질은 중남미 사업의 교두보로 가장 시장도 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브라질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급망 이슈가 커지면서 광물·합금·곡물 등 기업들도 브라질 시장진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65386	28322	50651	73352	65897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브라질은 대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무역투자기관인 APEX-Brasil의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대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2014년 APEX-Brasil과 미국 정부의 투자기관인 SelectUSA은 2014년 2월 양국 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산업별로 브라질의 대외 직접투자는 금융서비스가 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가 10.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카리브해가 전체 브라질 대외 직접투자의 47%를 차지하였고, 유럽이 37.7%로 2위를 차지했다. 유럽의 경우 특히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 대외 직접투자가 집중되었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9031	-13415	20450	32100	29920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메르코술 관세동맹 공식출범 및 시장 확대를 계기로 1994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회복 현상과 1996년 한국 정상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가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내수시장 및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 진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10년대 초반 브라질의 고도성장으로 현대자동차 및 다수의 협력사들이 진출하였고 기타 제조업, 금융, 건설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하지만 이후 브라질 경제 침체로 브라질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되었다. 2021년의 경우 제약, 의료기기 기업의 법인 설립 등으로 투자액이 전년대비 증기했으나 브라질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2022년 한국 기업들의 대 브라질 투자는 대폭 감소하였다.

2023년부터 코로나 19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농산물 수출 호조로 인해 브라질 경제가 견고한 성장률을 달성하며, 한국기업의 대브라질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LG전자가 2024년부터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냉장고 공장 건설을 발표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2032년까지 11억 달러를 브라질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오스렘임플란트는 브라질 치아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인 '임플라실 드 보르톨리'(Implacil de Bortoli)를 8천98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2	34	5	98,067	63	107,262
2023	21	1	1,176,684	51	1,178,480
2024	21	3	137,137	33	133,70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자동차, CJ등 대기업들이 진출하며 함께 진출한 협력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2012년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자동차 브라질 법인에 부품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 진출을 결정하여 브라질 최초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졌다. 2019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여 바이오의료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활발하였다. 2023년 이후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 호조로 인해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임플란트 등 내수 소비재

위주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1,600	1	70
제조업	18	3	85,425	33	89,789
건설업	2	0	2,630	15	1,247
도매 및 소매업	3	0	2,052	5	9,896
운수 및 창고업	1	0	200	1	200
정보통신업	5	2	1,550	5	1,5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	4,510	3	4,51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1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1,610	5	638
제조업	13	1	1,173,532	30	1,175,133
건설업	0	0	0	12	1,291
도매 및 소매업	1	0	18	1	18
운수 및 창고업	1	0	300	1	300
정보통신업	3	0	224	1	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000	1	1,0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3	220
제조업	14	0	132,367	18	131,494
건설업	1	0	2,140	7	410
운수 및 창고업	1	0	0	1	0
정보통신업	2	1	230	2	2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2	2,400	2	1,3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수출입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
모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한국산업은행
------	--------

○ KEB하나은행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우리은행

○ 미래에셋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미래에셋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제품(컬러TV, 하드디스크, DVD, 오디오, 디지털카메라, 에어컨, 휴대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컬러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모니터, 휴대폰, CDR, CDRW
모기업명	LG전자

○ (주)LG화학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석유화학 레진, 휴대폰 배터리
모기업명	(주)LG화학

○ 현대자동차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생산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모듈, 범퍼
모기업명	현대모비스

○ 포스코

진출연도	197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Pallet(발리와 합작)
모기업명	포스코

○ CJ 바이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Lysine(동물사료용 단백질)
모기업명	CJ 제일제당

○ 효성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Spandex yarn. Chemical
모기업명	효성

○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WHOLESALERS, BROKERAGE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튜브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넥센타이어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다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LCD부품
모기업명	다솔

○ 동국시스템즈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정보통신업
취급분야	Help Desk, Field Service, IT Infra 구축 및 유지보수, Data Center 관리, SAP 구축 및 유지보수, Web/모바일 개발
모기업명	동국시스템즈

○ 엘에스엠트론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농업용 트랙터 제조
모기업명	엘에스엠트론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주식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가지는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인 법률 제6404호(1976. 12. 12.)를 통해 규율하는데, 이 법은 법률 제9457호(1997. 6. 5.) 및 법률 제10303호(2001.10.31.)에 의해 부분 개정됐다.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 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유한책임 회사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 법인 형태의 전환은 절차가 간단하고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외국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창립주주로서 응모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유한책임회사(LTDA)는 주식회사(S.A.)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회사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명의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자로 지주 구성이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만일 한국 기업이 본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부(MTE) 산하 이민협의회(CNIg)에서 2015년 10월 21일부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투자를 통해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이 50만 헤알을 투자하거나 둘째, 법인이 1인당 60만 헤알을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인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 의무는 없으나, 개인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 의무가 있어 2년 내 최소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개인 투자의 경우 혁신, 기초·응용 연구, 과학·기술 투자 등 R&D 투자를 실시할 경우 최대 15만 헤알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 경영인은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꼭 지정돼야 하며,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이어야 한다. 지주경영인이 회사를 대리 경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상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절차

- 브라질 현지 법인명을 확정하고 상업등기소에 기존 등록 여부를 확인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작성
- 브라질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설립주주를 확정(법인명, 주소, 대표자 성명)
- 브라질 현지법인을 관리할 대표자(directors or officers)를 선정: 브라질 법상 브라질 법인의 관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시대표를 지정
 - 설립주주의 브라질 대리인의 지정: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주주가 외국기업이나 해외거주 개인일 경우, 반드시 브라질에 대리인을 지정 필요. 대리인이 부재주주를 대리해 설립정관에 서명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주의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
 -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법인이 설립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의 투자법인이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위임장(powers of attorneys - 'procuração'):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소위 부재주주(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맡은 브라질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등기소, 연방국세청,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설립주주를 위해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리권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notarization) 브라질

영사관에서 영사인증(legalization by the Brazilian consulate)을 받아야 한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임장에 서명한 개인 또는 법인대표의 서명확인을 해주고,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공증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영사인증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대표와 동일해야 하며, 회사정관에 회사를 대표해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증인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자가 법인대표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quotaholder): 브라질 현지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설립지에 등기된 법인등기부의 사본,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브라질에서 번역하기가 수월하다.

o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상호 결정 이전 유사상호(商戶)검사 실시(Formulario Pedido de Busca)
- 소정의 검사료 납부필(법인 등록 서류(Ficha de Cadastro Nacional)): 'Cadastro Web'에서 작성 후 양식 다운로드
- 상업등기소 등록 요청 서류(Requerimento/Capa do Processo) 1부
- 법인등록 서류(Ficha de Cadastro Nacional) 양식1과 양식2 각각 1부
- 변호사 및 증인, 투자자 전원이 서명한 계약서(회사 정관: Ata de Constituição)

o 법인 설립 비용

- 법인 설립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적게는 5,000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인건비 외에 통신비, 번역비, 복사비, 교통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통상 번역비와 등록비 외 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사

지사는 외국 회사가 투자자로서 브라질에 현지법인(incorporation of a Brazilian company)을 설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 회사의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사(filial estrangeira)의 설치는 긴급법 제2627/40호 (Decreto-lei n° 2.627, 1940. 9. 26. 제64조-73조)와 국가상업등록국(DNRC)의 지시 규범 제81호(Instrução Normativa da DNRC n° 81, 1999. 1. 5.)에 규정돼 있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 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기간은 보통 3~6개월가량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된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 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 사본을 해당주의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해야만 비로소 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게 된다.

지사 설립은 그 허가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법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지사 설립은 신중을 요하며 권장사항이 될 수 없다. 항공사 등 지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사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연락사무소

브라질에는 법적으로 연락사무소 방식의 투자 진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통신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며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브라질은 고질적인 정치 불안과 환율 변동 폭이 크다는 점, 1차상품 의존도, 재정 불균형 등이 외국 투자 유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S& P(BB), Moody's(Ba2), Fitch(BB) 등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 모두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기 등급을 보유한 브라질은 단기 투자 시 비교적 불안하지 않은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 경제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장기 투자에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Moody's는 '24년 10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Ba2 에서 Ba1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등급 전망은 '긍정적'을 유지했다. Ba1는 투기등급에서 첫 번째 단계로 한 단계만 오르면 투자 등급에 포함된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브라질에서는 우편 사업,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브라질 내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한 분야는 차별대우의 근거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의 경우, 외국기업은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등의 공유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한쪽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 공기업의 경우 기술 이전을 합작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작을 결정하기 전에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관료주의적 행정이 만연되어 있어, 기업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따라서 합작 투자의 경우는 여러 사안을 두 업체가 함께 결정하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정권이 감소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기간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p> <p>3) 분쟁해결 브라질은 '투자 분쟁 해결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체결국이 아니며 투자 관련 전문적인 상담 창구나 중재기관 등도 없다. 따라서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들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통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진다. 주식회사(Corporation/S.A.)는 포르투갈어로 Sociedade Anonima(S.A)이며, 미국의 Corporation(Co.), 영국의 Public Limited Company(PLC)와 유사한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annual accounts)과 주주총회 회의록(minutes of shareholder's meetings)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 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으로 비축해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적립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법인형태 전환은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유한책임회사

브라질의 유한책임회사(LTDA)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이해된다. 과거에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명의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외국 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유한책임회사(LTDA) 설립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지역의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에 법인설립등기, 법인등록번호 발급
- ② 연방 세무국(Receita Federal)을 통해 법인납세인 등록,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③ 법인명의 계좌 개설
- ④ 중앙은행에 외자 등록
- ⑤ 주 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 등록
- ⑥ 시청(Prefeitura Municipal) 등록
- ⑦ 노동부에 주재원 비자신청 등의 과정을 거침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MEI- Microempreendedor Individual)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소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 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 파산 시에는 사업자 개인 자산까지 회사 부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을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Demarest Almeida Advogados

전화번호	(55-11) 3356-1800
주소	Av. Pedroso de Moraes, 1201, Centro Cultural Ohtake, Sao Paulo, SP, Brasil
홈페이지	https://www.demarest.com.br
이메일	mgkim@demarest.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민곤 변호사

◦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전화번호	(55-11) 5086-5000
주소	Rua Borges Lagoa 1328, 04038-904, Sao Paulo SP Brasil
홈페이지	http://tozzinifreire.com.br/
이메일	skim@tozzinifreire.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신재 변호사

◦ Lobo de Rizzo

전화번호	(55-11) 3702-7337
주소	Avenida Brigadeiro Faria Lima, 3900- 12º andar CEP: 04538-132
홈페이지	https://www.ldr.com.br/
이메일	inhee@ldr.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인희 변호사

◦ Mattos Filho

전화번호	(55-11) 3147-7600
------	-------------------

주소	Rua Joaquim Eugeinio de Lima 447 - Jardim Paulista, Sao Paulo - SP
홈페이지	https://www.mattosfilho.com.br/
이메일	yelin.kim@mattosfilho.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예린 변호사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브라질은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브라질의 외환관리법 이자 외국인 투자법에 해당하는 법률 제4131호(1962년 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울러 외환관리기관인 중앙은행(BACEN)의 기본규정들을 수시로 참조해야 한다. 국내 통화발행 및 유통 통화금액은 중앙은행만이 관리할 수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표금리와 인플레이율 목표에 기초해서 국내 통화발행 및 유통통화 금액을 관리한다. 통화의 국외로의 유출입에 대한 관리는 국내 통화의 유통규정(모든 채무는 국내 통화만으로 정산)에 따라 중앙은행만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내에서 외국 통화의 유통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다. 브라질의 외환시장은 무역·금융 외환 시장(무역거래, 브라질 국내에서 외화 기준 투자, 브라질 거주자에 대한 외화 기준 대부 등) 및 관광외환 시장(당초 관광산업용으로 설치, 후에 다른 거래도 커버하기 위해 쓰임)의 2종류가 있었지만, 1999년 2월에 무역·금융 외환 시장으로 통합됐다.

환율은 공정 환율(Cambio comercial), 관광 환율(Cambio Turismo), 암시장 환율(Cambio Paralelo) 등으로 구분되며, 2024년 11월 5일 기준 환율은 1달러=5.7헤알이다.

* 공정 환율 : 중앙은행이 공시하는 환율로 수출입 등 무역 거래 시에 사용한다.

관광 환율 : 비행기 티켓, 해외 여행 상품 구매 시 적용되는 환율로 공정 환율보다 높다.

암시장 환율 :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달러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외환 규제

외국 기업들이 부단히 변화하는 환율에 대응해 적절하게 금융자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브라질 거주인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외화를 기준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지 투자기업들이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으며 외화표시 자산을 소지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브라질 거주 일반 소비자의 경우, C6 Bank, Inter 등과 같은 디지털 은행에 달러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나,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를 현지기업이 소지할 수도 없으며, 무역과 관련한 환계약도 중앙은행에서 지정하는 날짜 안에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에 대비한 헤징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에 기준으로 한 화폐가치 수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실행한다.

경우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이나 경화 표시를 통해 헤징을 해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5.8헤알(2024년 11월 5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176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0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5
-------------------------	-------	-------------------------	-----	-------------------	------

<자료원 : glassdoor>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 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 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인은 채용한 모든 피고용인에 관한 신상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부는 반드시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 기록부에는 모든 노동자의 명단과 외국인 고용자,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최초 채용되는 피고용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고용계약서에 명시)을 수습 기간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에 기본 급여보다 낮게 지급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에 근거, 지역 노동감독국에서 발행한 노동 수첩을 모든 노동자는 항상 지참, 사용자는 노동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감독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수첩: 직종, 급여, 채용일, 계약 기간, 근무조건 등 명시
- 대장: 노동부 등록내용, 종업원 자격, 초과근무 및 근로시간, 휴가 등

채용 면접 시 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퇴직 당시 회사의 추천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동 수첩 등 고용 관련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토요일 휴무를 위한 보충노동 시간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 및 조합에 등록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정상적인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화이트칼라층은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월~금요일까지 근무한다.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는 기본임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의 최대 시간은 10시간 이내에서 일일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컨대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48분이라면(주 5일 44시간), 일일 초과 근무시간은 최대 1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중식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사무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루 20~45헤알 정도다. 추가로 출퇴근 교통비(공공요금 기준) 또는 주유대를 지원해야 하기도 한다. 참고로 중식대, 교통비 등은 급여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쿠폰, 적립카드 등 노동법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 즉,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해당 비용들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했을 때는 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고용주는 1년 근무 후 연 30일의 유급휴가와 휴가보너스(월급+월급의 1/3)를 휴가 이틀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산 시에는 120일의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으며,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출산 5개월까지는 해고할 수 없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가 합석해 확인해야 한다. 조합 대표의 확인이 없는 경우, 임신부를 재고용하거나 퇴직 보상을 해야 하며, 출산 후에는 근무 개시와 동시에 건강 진단서를 청구해 두어야 한다. 부인이 출산할 경우, 남편은 5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2008년 7월 법정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에서 201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단, 아직 6개월 출산휴가 실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6개월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일단 실시를 하게 되면 향후 모든 직원에게 6개월간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회사 부담으로 매월 적립되는 사회보장세(INSS)에서 부담한다. 6개월간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4개월은 사회보장세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 2개월분의 급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해고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그동안 적립된 FGTS 금액의 40%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 현지 직원 해고방법

브라질의 해고 제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는 한국과 거의 동일하며 CLT(브라질 노동법), 제482조에 정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나와 있다. 정당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잔여급여, 13번째 급여의 미지급분, 유급휴가비의 미지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CLT 제482조 정당해고 사유
 - 부정행위
 - 사내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또는 업무에 부적절한 품행
 - 현재 고용된 회사와 경쟁구도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나 업무에 비효율적인 행동
 - 근로자의 형사처분 확정판결문의 공포
 - 업무처리에 대한 부주의 또는 과실
 - 습관적인 알코올 섭취 또는 업무 중 음주
 - 회사 기밀 누출
 - 기강 해이 또는 상사 지시에 대한 불복종
 - 업무 유기
 - 정당방위를 제외한 업무 중 발생하는 동일한 직위의 근로자에게 가하는 모든 인신공격 또는 물리적 가해
 - 정당방위를 제외한 업무 중 발생하는 상사에 대한 모든 인식공격 또는 물리적 가해
 - 습관적 도박
 - 행정절차를 통해 증명된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의 내용은 잔여급여 지급, 30일간의 사전해고 통보 기간, 13번째 급여 미지급분, 유급휴가비, 유급휴가 대비 1/3의 추가금, 고용 기간에 적립한 근속보장기금(FGTS)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및 FGTS 인출을 허가해야 한다.

근속 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하며, 사전 통보 기간도 근속 기간에 비례해 증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 외 해고는 아니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기 혜택 중 사전 통지와 FGTS 40%의 벌금 규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혜택이 적용된다. 브라질의 노동 소송은 한국과 달리 노동법원을 통해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변호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부추겨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을 하기 전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합의가 무산된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 후 사례금에 대한 지불이 이뤄지게 되며, 법원이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노동소송이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 기간은 비교적 길고,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 후 3개월까지는 인턴십으로 인정돼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다. 브라질에서 정당해고와 부당해고의 차이는 FGTS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즉, FGTS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면 해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기업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후 해고를 한다.

2017년 개정된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만 있으면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립액의 20%만 벌금으로 책정되며 근로자는 FGTS 적립액의 80%까지 즉각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

모든 회사는 직원 월 급여의 8%를 근속연수 보상기금(일명 퇴직수당: FGTS, Fundo de Garantia do Tempo e Serviço)으로 Caixa Economica 국책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적립금은 직원이 해고 당할 경우 일시불로 찾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에 이 적립금의 50%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된다(40%는 해고 직원에게 지급, 10%는 다시 정부에게 지불함).

그러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이 적립금을 퇴직 시에 찾을 수 없으며, 회사는 벌금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노동자들은 퇴사 의사가 있을 시 FGTS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의료보험(Plano de Saude)은 산업별 노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의료보험을 지원하며 일부는 치과보험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기업은 줄었으나 고급 전문인력 유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 및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브라질 정부는 실업자에게 신청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6개월 동안 연속해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6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 어떠한 지속적인 연금 혜택도 받지 못했으며, 사회보장규정에 따라 규제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경우

산재보험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나, 기계 장비를 운전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직종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법원에 호소하면 노동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해당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을 납부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다. INSS는 사회보험

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돼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의 20%를 부담하고 직원은 급여의 8~11%를 INSS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성별 관계없이 최소 15년)과 노동자의 나이(남성: 65세 이상, 여성: 62세 이상)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 INSS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돼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의 20%를 부담하고 직원은 급여의 7.5~14%를 INSS로 납부해야 한다.

- 급여 1,412.00헤알 이하: 7.5% 세율 적용함
 - 급여 1,412.01 ~ 2,666.68헤알 : 9% 세율 적용함
 - 급여 2,666.69 ~ 4,000.03헤알: 12% 세율 적용함
 - 급여 4,000.04 ~ 7,786.02헤알 : 14% 세율 적용함
- (*급여 한도는 2024년 기준)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소득 기본세율은 15%이나,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소득 중 초과액(연소득 24만 헤알 이상 또는 분기 소득 6만 헤알 이상)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의 초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초과소득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법인소득세율(IRPJ)은 25%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업 이윤세(CSLL) 9%를 더한 34%가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IRPF)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소득 한도를 조정하여 공지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매년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 사이트를 통해 신고한다.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은 4월 1일 ~ 5월 31일이다. 2023년 기준 소득 한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급여 2,259.20 헤알까지는 면제
- 급여 2,259.21~2,826.65헤알의 경우, 공제액이 169.44헤알이며 세율이 7.5%이다.
- 급여 2,826.66~3,751.05헤알의 경우, 공제액이 381.44헤알이며 세율이 15%이다.
- 급여 3,751.06 ~4,664.68헤알의 경우, 공제액이 662.77헤알이며 세율은 22.5%이다.
- 급여 4,664.68헤알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896.00헤알이며 세율이 27.5%이다.

부가가치세

브라질에는 '부가가치세' 라는 통합 세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신 '공업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 '유통세(ICMS)' 등이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세금 들은 가격 산정 시에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약 4000여 개 품목의 공업세(IPI)를 최대 25%까지 감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023년 7월 브라질 하원은 30여 년을 끌어온 조세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인 IPI(공업세)와 PIS/Cofins(사회기여세), 주 세금 ICMS(유통세), 시 세금 ISS(서비스세)를 2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IVA)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여세 (CBS-Contribuição sobre Bens e Serviços)'가 기존의 IPI와 PIS/Cofins를 대체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IFS: Imposto sobre Bens e Serviços)'은 ICMS와 ISS를 대체하게 된다. 2023년 통과된 개혁안은 2026년부터 시험 기간을 거쳐 2033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브라질 정부는 사치품이나 담배, 주류 등과 같은 기호품에 주로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 까샤사(Cachaça): 81.87%(*사탕수수로 만든 술)
- 모피코트: 81.86%
- 보드카: 81.52%
- 담배: 80.42%
- 수입산 향수: 78.99%
- 비디오 게임: 72.18%

- 권총: 71.58%

- 오토바이(250cc 이상): 64.64%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브라질은 산업재산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표장, 지리적 표시 및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특허와 같은 고도성의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의 장식적 조형물 또는 제품에 이용할 수 있는 선 및 색채의 장식적 배치가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최대 25년까지 존속 가능하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장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은 등록의 부여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 가능하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시예방 조치로 수색과 압류의 민사 소송과 침해된 제품의 사용 중지, 사용중지의 불이행에 대한 벌금형,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의 유죄판결의 조치를 요구하는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0. 4. 1.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내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과 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브라질 지식 재산권 관련 상세 정보는 INPI(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https://www.gov.br/inpi/pt-b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특허 등록 절차 : <https://www.gov.br/inpi/pt-br/servicos/patentes/guia-basico>
- 상표등록절차: <https://www.gov.br/inpi/pt-br/servicos/marcas/guia-basico>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절차

사업 정리 시 회사에 잔여 부채가 없다면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0~120일이 걸린다. 회사 청산은 개인도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해 가급적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 청산을 위해서는 우선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을 방문해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납 문제가 없으면 CNPJ(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idica; 법인 납세 번호)의 등록을 폐지해야 한다. 그다음 연방국세청에 법인소득세 납부증명서와 법인등록증(Ficha Cadastral de Pessoa Juridical)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 재무국에서는 법인의 주 등록 폐지신청(Declaração Cadastral para o Cancelamento da Inscrição Estadual)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MS 기입장인 세무 장부 1번 양식(Livro Fiscal Modelo 1)과 6번 양식(주 세금 기입 장부)을 지참해야 한다. 시청에서는 시 등록 폐지신청(Guia de Dados Cadastrais: GDC)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SS(시 서비스 세) 기입장부인 세무장부 51번 양식과 57번 양식(시 세금 기입장부)을 지참해야 한다.

국가사회보장국(INSS -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에서 복지금완납증명서(CND - Certidão Negativa de Débito do INSS)를 받고, 연방금고은행(CEF - Caixa Econômica Federal)에서 FGTS(퇴직기금) 완납증명서(CRF - Certificado de Regularidade do FGTS)를 받아야 한다.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이제 회사등록을 폐지해야 한다. 민사등기소(Cartório de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ídicas)에 등록된 법인은 민사등기소에서,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은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서 회사 등록을 폐지한다. 이때 법인(Sociedade)의 경우는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 해지서(Distrato Social)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적 정리는 완료되나, 회사 관련 서류는 청산 후 최소 5년간 보관해두어야 한다.

○ 연방국세청에서 CNPJ의 폐지를 위해서는 회사 등록기관의 등록 폐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등록 폐지 증명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는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의 회사정관해지서(Distrato Social), 단순법인(Sociedades Simples)의 경우에는 법인민사등기소(Cartório de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ídicas)의 회사정관해지서,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OAB(변호사 협회)의 설립정관 해지서(변호사 사무실은 민법상 법인이지만 OAB의 특별관리를 받음), 비영리협회(Associações Sem Fins Lucrativos)는 법인민사등기소에 등록된 해산결의총회의록(Ata da Assembleia) 등이다.

2) 철수 관련 법령

해외 거주자가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매각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액수까지는 면세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돼 15%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된다(조세 천국의 거주자에게 보내는 송금의 25%). 투자금의 회수는 투자를 매각하든지, 자본 감소나 기업정리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외환거래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자등록증
- 자본이득의 산정표
- 대차대조표

외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금과 투자회수금과는 환율 차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15%의 원천소득세 징수의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에 나타난 영업누적손실을 모두 보전한 후에야 투자금을 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투자 철수 시 누적 손실이 있다면 해당되는 만큼 감자를 단행하는 것이 좋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 투자 역사가 오래된 글로벌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현재도 중남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까지 1달러=3.5 헤알 대 안팎에 머물던 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1달러 =5헤알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 시장은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된 경제 불황은 중산층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 내수소비 및 민관투자 위축 등을 초래했으며 여기에 물가 상승이 지속돼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브라질은 지난 2015년까지 수년간 이어진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득 증가, 도시화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산층이 확대됐다.

2011년 기준 브라질 상위 소득층 인구는 전체의 6%, 중산층 인구는 54%를 점유했으며 하위 소득층은 38%를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중산층 비중이 51%로 하락했으며, 반대로 하위 소득층은 43%로 증가했다.

2023년의 경우, 고소득층이 전체 인구의 2.9%, 중간소득층은 44.5%, 하위소득층은 52.5%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같은 추세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브라질 소득별 계층(2023)

- (고소득층) A: 월 가구 소득 23만8000헤알(4만7600 달러) 초과
 - * 전체 인구의 2.9%
- (중간소득층 1) B: 7600~2만3800헤알(1520~4760 달러) 미만
 - * 전체 인구의 14.2%
- (중간소득층 2) C: 3200~7600헤알(640~1520 달러) 미만
 - * 전체 인구의 30.3%
- (저소득층) D/E: 3200헤알(640 달러) 미만
 - * 전체 인구의 52.5%

자료원: Tendências Consultoria(시장 조사/컨설팅 업체)

*주: 브라질 인구: 2억 1258만 명(2024.7. 기준)/환율: 1 달러 = 5.6헤알 (2024.11. 기준)

<자료원 : 국가지리통계원 IBGE(www.ibge.gov.br), 여론조사업체 IBOPE>

소비 성향

브라질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저가, 대용량을 선호하던 기존 소비패턴에서 점차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Trade up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구매 트렌드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고사양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조사 기관 닐슨 브라질이 소득계층에 따른 총 85개 카테고리 품목의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 소비자들이 저가 물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고품질, 고사양의 상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 수입이나 품목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전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민간소비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성장,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소비력은 더욱 감소된 상태다. 구매력 감소는 꼭 필요한 제품만 선별하고 품질을 따지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상품을 선호하는 브라질 소비자들의 Trade up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중산층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 변화를 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급 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브라질 진출 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물론 상품의 고급 이미지화가 필요하다.

한국 상품 이미지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덕분에 브라질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한국 상품은 휴대폰, TV, 컴퓨터, 자동차 등 주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IT 제품이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대 자동차 제품의 경우, 견고함과 모던함을 겸비한 모델로 인식되어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K-pop, K-Drama의 열기는 브라질에서도 뜨겁다. 브라질 팬들은 K-pop, K-Drama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K-pop, K-Drama에 대한 여러 의견, 기사, 최신 소식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메로나, 봉어싸만코 등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수년 전부터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과일이 들어간 봉봉 주스도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Drama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 한국음식에 대한 로망이 확산되었다. 이에 한국산 식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맛보려는 브라질 소비자들이 봉헤찌로(Bom Retiro)나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에 위치한 한인 슈퍼마켓,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브라질 시장은 신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일반적으로 소량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거래는 상호간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브라질인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 바이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실존 여부와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닭고기, 브라질 너트, 대두, 옥수수 수입과 관련하여 선금을 요구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무역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장 시 제품 카탈로그를 반드시 준비하고, 가능한 경우 샘플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권장된다. 카탈로그만으로는 제품의 우수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샘플을 통한 시연이 비즈니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상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해야 한다. 담당자에 따라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차례 연락 후에야 회신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만약 브라질 업체가 거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한 표현으로 거래 의사가 없음을 알려 서로 간의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자세가 요구되며, 신용 상태 파악과 수출보험 가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지하고, 브라질은 상사분쟁 관련 국제협정(ICSID) 미체결국이므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중에는 팀 구성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어 사용과 협상 담당자 변경은 브라질 기업인들이 어려워하는 점 중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사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의 중 한국어 사용을 자제하여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자수성가한 기업인과 가족기업 경영자는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지만, 일반 비즈니스맨은 복장에 신경을 많이 쓴다. 브라질 사람들은 대체로 캐주얼한 차림을 즐기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정장 착용을 피한다. 여성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성이나 여성 모두 청바지를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착용하곤 한다. 다만 상의는 정장을 맞춰 입는 것이 좋다.

2) 인사

브라질에서 비즈니스 만남 시 악수는 기본이다. 평소 여성과 인사할 때는 양 볼에 뽀뽀(소리만 쪽 나게 함)를 하고, 남성 간에는 어깨를 툭 툭 치거나 반 포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이는 한국인의 낯가림과 대조적이다. 회의 시에는 참석자 모두와 악수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도 모든 이와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브라질 측에서 먼저 식사 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약속 없이 회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 식사 초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는 비즈니스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회의 후 상대방의 태도를 살피

는 것이 중요하다.

3) 선물

브라질 비즈니스에서는 첫 만남에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심이나 저녁 초대가 선물보다 더 의미 있는 행위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은 이러한 절차가 지난 후에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은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아주 좋다. 요즘은 브라질 기업들도 미리 회사 로고를 찍은 선물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회사 기념품 외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턱없이 비싼 선물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4) 약속

브라질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 구두 약속을 한 후, 가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1~2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브라질 사람들은 약속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리언 타임으로 생각하고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재택 근무와 온라인 미팅 확대로 시간 엄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5) 식사

브라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늦은 편이다. 9시나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브라질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코셔 인증(정통 유대인의 경우)을 받은 식당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식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파울루의 경우 코셔 인증을 받은 유대 음식 전문식당이나 채식 전문 식당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 식사 중에는 입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다. 특히 국수 등을 먹을 때 '후루룩'하며 소리를 내며 먹지 말아야 하며, 포크로 감아 나이프로 한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에 입을 벌리고 이를 쏘시거나, 큰소리로 트림하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이다. 저녁 시간의 경우, 맥주와 와인을 식사에 곁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가볍게 한두 잔 마신다. 까이삐링냐(Caipirinha)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약 40도가량의 술로 '까샤사'라고 불림)에 레몬과 설탕, 얼음을 잔뜩 넣어 으깨어 먹는 술로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이며, 요즘은 레몬 대신 키위, 딸기 등의 여러 과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이다. 술 한 잔 시켜놓고 한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며, 한국식으로 원샷을 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처음 몇 잔은 이색체험으로 재미있어하거나 따라 하지만, 그 이상 계속되면 곤혹스러워할 수 있다.

브라질에도 '퇴근 후 술 한 잔' 문화가 있다. 'Happy Hour'라 불리는 퇴근 후 음주 문화는 부서 전체가 참석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료 몇 명이 모여 맥주 한두 잔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전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주는 대부분 생략하거나 감자튀김 정도의 가벼운 안주를 주문하며, 주로 주말이 가까워 부담이 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Happy Hour'를 갖는 경우가 많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Shein

사이트 주소	https://br.shein.com/
개요	2008년 중국에서 ZZKKO라는 이름으로 설립, 처음에는 웨딩드레스 전문이었으나, 추후 여성의류 전문점으로 확장했다. 2010년부터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50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8년 중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브라질에는 2020년 중반에 진출했다. 2021년 해당업이 2380만 회 다운로드를 기록, 2022년 2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포브스가 선정한 2022년 50대 중국혁신기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타임지> 글로벌 100대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 4월에는 2023년 글로벌 유니콘 기업순위에서 4위를 차지 했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속옷, 신발, 모자, 가방, 벨트 등 패션 액세서리 일반, 뷰티제품,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브랜드는 2015년에 자체 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Shein'이라는 이름을 채택, Piper Sandler의 연구에 따르면 Shein은 청소년 세대(MZ 세대) 사이에서 아마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브랜드로 꼽힌다. 현재 이 브랜드는 패스트 패션 부문에서 참조되며, 다른 유사한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비자들이 소매업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다양한 스타일과 성격을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인상적인 다양한 제품과 액세서리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의류는 날씬한 체형부터 플러스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된다.

○ Shopee

사이트 주소	www.shopee.com.br
개요	Shopee는 싱가포르의 Sea Group에 속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에 진출해있다. 2019년 아시아 외 지역최초로 브라질에 진출했으며, 2021년에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됐으며 브라질에는 2019년 진출했다. 2022년 대비 36.3%상승하여 2023년 21억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용 액세서리, 유아용품, 뷰티 제품, 장난감 및 게임, 가전 제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IT 제품, 악기, 도서, 의류, 사무용품, PET 제품, 가구, 건강제품, 식품 및 음료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Shopee가 현지화 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행복(happy), 단순(simples), 사회적(social)'이라는 브랜드 성격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Instagram, TikTok, Facebook, Twitter, Kwai 등 여러 채널과 주요 포털 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Shopee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언어 사용, 밈과 인기 있는 주제를 활용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앱 내에서의 구매 기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프로모션 측면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Shopee는 이러한 전략으로 단기간 내에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 Magazine Luiza

사이트 주소	www.magazineluiza.com.br
개요	의류 등을 파는 지역 상점이었으나 현재는 브라질 23개주 819개 도시에 11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창업주의 손자 Frederico Trajano가 CEO에 취임하면서 Magazine Luiza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멀티채널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agazine Luiza는 1957년 설립됐으며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5% 성장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전자상거래는 2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6% 성장했으며, 전체 온라인 시장이 7% 하락한 반면 Magazine Luiza는 성장세를 보였다. Magalu의 마켓플레이스 매출은 전년 대비 25% 성장한 8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마진은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30.4%를 기록했다. 마케팅 서비스 수익은 44% 증가했다. 마켓플레이스에는 32만3000명의 판매자가 있으며, 1억1400만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 가능하다. Magalu Entregas는 마켓플레이스 주문의 80% 이상을 배송하며, 이 중 51%는 48시간 이내에 배송된다. 또한, 14% 이상의 주문은 Fulfillment을 통해 배송되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유아용품, 뷰티 제품, 장난감, 가전 제품, 침구용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IT 제품, 도서, 의류, 사무용품, PET 제품, 가구, 건강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Magalu 물류는 마켓플레이스 주문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 중 51%는 48시간 이내에 배송된다. 마켓플레이스 주문의 14% 이상이 Fulfillment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배송 비용을 평균 25% 절약하고, 판매 전환율을 25% 높일 수 있다. 고객은 온라인 주문 상품을 자택으로 배송받거나, Magalu의 1,000개가 넘는 매장 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수령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마켓플레이스 주문의 약 23%가 매장 수령으로 이루어진다.

○ Amazon

사이트 주소	www.amazon.com.br
개요	2012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동사는 Kindle과 십여 종류의 e-book 만을 Amazon.com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3만5000 종류의 e-book을 취급하게 됐다. 외국어로 쓰여진 도서까지 합칠 경우 약 200만개 종류가 동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2년 12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Amazon.com는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Amazon.com.br은 2023년에 디지털 리테일 미디어 광고 수익으로 약 1억3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이전 해인 2022년의 약 1억1700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Amazon Brasil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시킨 디지털 리테일 미디어 광고 수익에 관한 것으로, 전체 매출의 일부를 나타낸다. 또한 Amazon Brasil만의 구체적인 직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Amazon의 전체 인원은 약 154만1000명으로 확인된다.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용 액세서리, 유아용품, 뷰티 제품, 장난감 및 게임, 가전 제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IT 제품, 악기, 도서, 의류, 사무용품, PET 제품, 가구, 건강제품, 식품 및 음료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2014년 인쇄도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17년에는 스마트폰, 게임, 소형 가전제품 판매에 나섰다. 또한 2018년에는 사무용품과 학용품 판매도 추가했다. 해당 회사는 점진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2017년 가전제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브라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Prime 회원은 Amazon.com.br에서 2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속한 수십만 개의 제품을 구매 시 최소금액 조건 없이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Prime Video를 통해 인기 TV쇼, Amazon 오리지널 시리즈를 포함한 수천 편의 시리즈와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Prime Music을 이용하면 200만 곡 이상을 광고 없이 무제한 스킵하며 오프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 Americanas

사이트 주소	www.americanas.com.br
--------	-----------------------

개요	브라질에서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하나로 Lojas Americanas가 최대 주주이다. 동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브라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에 설립됐으며 2022년 기준 4억4000만달러를 기록 하였다. 2023년 3만394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2년이후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IT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 스포츠용품, 뷰티제품, 아동용품, 장난감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2006년 M&A를 통해 설립된 B2W 그룹은 현재 Americanas.com, Submarino, Shoptime, Sou Barato.Lojas 등 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모두 B2W 그룹에 속해 있으며, 각각의 웹사이트는 https://www.submarino.com.br/ , https://www.shoptime.com.br/ , https://www.soubarato.com.br/ 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단, 한국에서는 해당 링크들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Mercado Livre

사이트 주소	www.mercadolivre.com.br
개요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현재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ercado Livre는 1999에 설립됐으며 같은 해 브라질 사이트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2년 Mercado Livre 브라질은 글로벌 매출의 약 54%인 5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1만 607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3년 5800명의 전문가를 새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부동산(판매 및 임대), 가전제품, IT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 스포츠/ 피트니스용품, 건축자재 및 공구, 건강제품, 뷰티제품, 아동용품, 장난감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Mercado Livre는 브라질의 월간 방문자 수가 5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방문률을 기록한 사이트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이 회사는 2022년 기준 2억 11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구매' 코너를 운영 중이며, 구매자는 해알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구매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Regenera América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237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120만 m ² 규모의 물류 창고를 운영 중이며, 모든 배송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LG전자

1995년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한 LG전자 브라질 법인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에어컨, 모니터 등에서 삼성전자, 노키아 등과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경제중심지 상파울루에 판매법인, 인근 따우바테시 및 아마존 지역 마나우스 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치밀한 시장조사, 스포츠마케팅 및 프리미엄 마케팅 등의 현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며 브라질 내수뿐만 아니라 인근국으로의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 LG전자는 2021년 5월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함.

LG전자는 1995년 7000만 달러를 투자해 LGEAZ(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와 LGESP(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등 2개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LGEAZ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생산 기반을 두고 각종 TV, 오디오, DVD, RAC(Room Air Conditioner)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LGESP는 상파울루 시에서 130km 떨어진 따우바테라는 산업도시에 위치해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브라질의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법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시장점유율에서 이미 선두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진입 초기에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제품 포지셔닝 오류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브랜드를 알리고 전국 유통망을 구축해 제품 판매를 증대해야 하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LG는 우선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 정책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구매 잠재력이 큰 주요 거점 도시들-남부의 뽀르뚜알레그레,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의 남동부 지역, 북동부의 살바도르-에서 집중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가전제품 전문 판매매장 내에 LG 디지털 공간(LG Digital Space)을 확보해 첨단 제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거나 유통 이벤트, LG 투어 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다. 아울러 상파울루를 연고지로 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축구팀 SPFC(Sao Paulo Football Club)를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파울루 축구팀은 인기 순위 1~2위를 다투는 팀으로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친근하게 다가선 LG를 현지 기업으로 생각하는 브라질인도 많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브라질 최대의 축제인 카니발 기간에 시발점인 고도(古都) 살바도르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후원하고, 각종 전시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브라질 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품 리더십(Product Leadership)을 기반으로 유통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통해서 브라질 현지 정서에 맞는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어낸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LG는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노출된 외환 리스크를 상쇄시키고 현지 금융 의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운전 자본금을 확보했다. 더불어 브라질 내 부품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해 현지 부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이용했다. 세금 문제의 경우, LG는 현지의 명망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세무 전문회사를 이용해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 및 대정부(연방, 주)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7월, 휴대폰 공장 증설 기념식에 브라질 롤라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브라질에서 LG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현재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브라질 평판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24년 LG전자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신규 냉장고 공장 건설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프리미엄 냉장고를 생산할 예정이다.

2) 삼성전자

마나우스 현지 생산에 따른 세제혜택을 활용해 생산경비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출액의 2.7%를 R&D에 사용하는 등 투자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의무 불이행 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손해 취소 및 자재 수입 불가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했다. 중남미 상권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남미 공동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 국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출을 시도했다. 환율 급락과 같은 경영 환경의 급변에 대해서 최소한의 투자전략으로 맞섰으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영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전략을 펼쳤다. 한편, 브라질 정부의 부품 육성산업 정책에 부응해 적극적인 대정부 로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LG 전자와 함께 브라질 평판 TV 시장에서 판매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의 IT 제품은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갤럭시 시리즈 제품의 경우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모두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브라질 최대 일간지 Folha de Sao Paulo가 선정한 2014년 'Top of Mind' 리스트에 오른 브랜드 중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첨단 기술 관련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Top Tecnologia) 분야 또한 1위로 선정됐으며, 이후 해마다 "첨단 기술 관련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 분야에서 1위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출시한 '갤럭시 폴드 BTS 에디션'은 전년 대비 판매량이 40% 증가하여 신제품도 안정적으로 브라질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3) 현대자동차

초기 투자 비용 6억 달러를 투입해 상파울루 내륙 지역 피라시카바에 건설한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말 마침내 문을 열었다.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20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2012년 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사가 동반 투자 진출을 했다.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만 9,000㎡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2022년 1~12월 누적 기준 브라질 내 현대차 판매는 승용차 부문 점유율 11.87%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제네럴모터스(GM)(16.76%), 2위는 피아트(15.49%), 4위는 폴크스바겐(15.20%), 5위는 도요타(9.05%), 6위는 지프(8.71%)이며, 7위는 르노(6.61%), 8위는 혼다(3.59%), 9위는 닛산 (2.85%), 10위는 푸조(2.28%)으로 조사됐다. 2012년 말 출시된 브라질 현지 전략 차종인 HB20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상위권을 다투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2년 1~12월 누적 기준 HB20는 96,255대가 판매되어 승용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현대자동차는 2032년까지 브라질에 11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브라질에서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미래기술 분야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 실패사례

해당 사례 없음.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2002년 5월 20일, 한국-브라질 비자면제협정 발효로 관광 및 상용 목적의 비자 없이 상호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뉜다.

통과비자, 관광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거주비자, 관용비자, 외교비자, 명예 비자이다. 이 중 관광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거주비자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되는 비자다.

1) 통과비자

제3국으로 여행하는 중에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로 경유 비자라고도 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중간 기착지가 브라질이며, 갈아타는 공항이 도착공항과 다를 경우 또는 운송수단이 다를 경우가 될 것이다.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가까운 브라질 영사관에 들러 여권과 연결 항공표를 제출하면 된다.

2) 관광비자

관광을 목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브라질 정부의 비자정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브라질인에 부여하는 비자 조건에 준해 관광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다. 브라질법은 관광객을 '이민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광 또는 방문의 성격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통상 90일을 넘을 수 없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상호주의의 기준하에 외무부가 결정하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수 출입국이 허용되며, 동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되 체류허용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로 한다.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90일 이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브라질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4.13.부터 수개월 간 사증면제협정이 정지되었으나, 2022년 9월 부터 한국인은 과거와 같이 비자 없이 브라질에 입국할 수 있다.

3) 임시거주비자

임시거주비자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임시로 브라질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외국인 법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에 따라 임시비자를 다음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문화 여행 또는 연구 목적
- 상업 여행
- 예술가 또는 체육인
- 유학 목적
- 과학자, 교수, 기술자 또는 전문직업인으로 노동계약이나 브라질 정부의 봉사 목적
- 신문사, 잡지, 라디오, TV, 통신사의 특파원 신분
- 종교인

체류 기간이 1년 이내로서 여행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중, 무역이나 투자활동과 관련해 특히 관심거리가 되는 종류는 상업여행과 노동계약을 통한 임시 영주권 발급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1996.9.11.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상용·투자·취재 사증의 발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1997.12.25.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협정 제1조는 '체약 당사자는 상용, 투자 또는 취재를 목적으로 타방국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에게 매년 총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방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영주거주비자

영주비자는 브라질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영주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 연구원 또는 고급전문인력
- 브라질 법인의 경영인(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 투자이민
- 60세 이상의 은퇴인으로 월 2000 달러 이상을 브라질로 송금할 수 있는 자
- 브라질인과 혼인한 자
- 브라질인 직계손이 있는 경우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는 신청 전에 해당 거주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여야 한다. 영주권은 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외무부가 발급한다.

영주비자 신청은 브라질 현지법인이 노동부에 신청하기 때문에 비자발급허가통지는 신청인이 받게 된다. 허가통지서를 발급받은 현지법인은 그 사본을 브라질 신청인에 송부하게 되고, 해당인은 현지 브라질 영사관에서 입국영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2024년 기준으로 세관검사는 입국자 중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입구에 설치된 화살표의 색에 따라 처리된다.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통과할 수 있고, 붉은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입할 때 연방 국세청 포고령에 따라 1인당 최대 500 달러까지 반입 가능하며, 면세점에서 1000 달러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인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개인 용품과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1000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무세통관 불가능한 품목(전자제품, 광학기기, 사치품 등)은 세관에 영치한 후 출국 시 반출하거나 간이 수입절차를 거쳐 반입할 수 있다.

식물과 애완동물은 출국자의 방역증이 있는 경우(대사관의 인증서를 포함)에만 반입할 수 있다.

항공 또는 해상 운송을 통해 입국할 경우 세관 신고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용 의류 및 위생/미용용품
- 액세서리 및 장식품
- 서적 및 잡지
- 개인 사용 의약품
- 담배 20개피 들이 10갑까지(시가는 25개피) - 18세 이상의 여행객에만 해당
- 주류(12L까지)
- 10달러 미만 제품 20개(동일 제품은 10개 미만), 10달러 초과 제품 20개(동일 제품의 경우 3개 미만)

viajante/entrada-no-brasil/cota-de-isencao-duty-free-e-bagagem-tributavel

위의 품목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 없으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은 없다. 단,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부패 위험이 있는 농산물은 공항 내 Duty Free Shop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55 (61) 3321-2500
주소	Av. das Nacoes, Lote 14 Asa Norte, 70800-915, Brasilia-DF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r-ko/index.do
비고	긴급연락처(사건사고): +55 (61) 99658-2421 업무시간: 09:00~12:30, 14:00~17:30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55 (11) 3141-1278
주소	주소: Av.Paulista, 37, 8ºAndar, cj.81 – Bela Vista São Paulo/SP Brasil CEP 01311-90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index.do
비고	사건 사고 긴급 연락처: +55 (11) 97188-5194 민원업무시간: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없이 정상 운영)

○ 재 브라질 한인회

주소	R. Guarani, 266 - Bom Retiro, São Paulo - SP, 01123-040
비고	브라질 한인회 (회장 김범진) 전화번호 : +55 (11) 98750-7474 * 한인회관 이전을 위해 현재 Bom Retiro K-Square 내에 임시 사무실 운영

○ 브라질 한국 문화원

전화번호	+55 (11) 2893-1098
주소	Av. Paulista, 460 - Bela Vista, Sao Paulo- SP
홈페이지	http://brazil.korean-culture.org/ko/welcome
비고	월~금: 10:00~19:00

○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

전화번호	+55 (11) 3229-4324
주소	R. Ribeiro de Lima, 282 - Bom Retiro, São Paulo - SP

홈페이지	https://www.cecsp.com.br/kr/
비고	월~금: 10:00~19:00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브라질 정부

주소	Praca dos Tres Poderes - Brasilia, DF, 70150-900
홈페이지	http://www.brasil.gov.br

○ 산업통상국(Secretary of Industry and Trade)

전화번호	+55 (61) 2027-7042/7041
주소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J - 8º andar CEP: 70.297-400, Brasília - DF
홈페이지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
비고	E-mail: agenda.secint@economia.gov.br

○ 외교부 상파울루 사무소(Ministry of Foreign Affairs - São Paulo Representative Office (ERESP))

전화번호	+55 (11) 3065-6800
주소	Av. Brig. Faria Lima, 1478 - 6º andar - Pinheiros, São Paulo - SP
홈페이지	https://www.gov.br/mre/pt-br/eresp
비고	E-mail: eresp@itamaraty.gov.br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5.60헤알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5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9.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9.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4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21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35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50ml	0.480
8	의료	항생제	12정	11.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89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89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89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7.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5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7.000
16	여가	담배	1갑	2.1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8.000
18	임금	최저임금	시급	1.1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년간	300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0.750
21	식품	쌀(일반 브라질 쌀)	1kg	1.50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800
23	식품	고기	1kg	7.500
24	식품	계란	10개	3.200
25	식품	우유	1L	1.780

26	식품	식용유	1L	3.21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050
28	주거	수도세	m ³	1.200
29	주거	가스비	m ³	1.2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30대	월	200.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71.42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1130.0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36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Vivo 통신사 기준 아시아 지역 통화 요금)	분	0.23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Vivo Selfie Amazon Prime 기준, 통화, 문자 무한 사용)	월	21.42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21.420
37	서비스	TV 수신료(공영채널은 무료 수신)	1개월	0.0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0.69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3.57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1.000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브라질의 화폐 단위인 헤알(Real)은 1994년에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지폐는 2헤알, 5헤알, 10헤알, 20헤알, 50헤알, 100헤알,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200 헤알까지 총 일곱 가지 종류가 있다.

동전은 1센타보(Centavo)부터 시작하여 5센타보, 10센타보, 25센타보, 50센타보, 그리고 1헤알이 사용이 된다.

환전방법

브라질에서 달러 ↔ 헤알 또는 유로 ↔ 헤알로 환전할 수 있으며, 달러 환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돼 환전 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2024.11 기준 환율은 1달러=5.60헤알이다.

- Dolar Comercial: 수출입 등 상거래 시 또는 은행 간 거래 시에 적용되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히 관리된다.
- Dolar Paralelo: 주로 달러 상인들에 의해 정부에 신고 없이 암거래할 때 적용된다.
- Dolar Turismo: 중앙은행에 등록된 환전소에서 거래되는 달러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상파울루 및 리우 지역 중심지에는 여러 환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일반 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한 환전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쇼핑몰과 관광지에서도 환전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환전 시에는 사람이 붐비는 지역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또한, 환전 액수를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 환전업자인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할 경우 더 유리한 환율을 얻을 수도 있으나, 위폐를 받을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브라질 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환전소에 서조차 위폐가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브라질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대다수 식당, 상점, 호텔 등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에서도 카드 수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대부분의 브라질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이 부족한 상점들이 많아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banking 서비스가 대중화되었고, 2021년부터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무료 전자 지불 수단 'PIX'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PIX'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휴대폰을 통해 거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쉽게 송금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의 경우, 버스 및 지하철 등 교통망이 비교적 잘 발달하여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자가용이나 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이다. 상파울루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학교 근처)에 교통 혼잡이 심한 편이며, 여행을 떠나거나 식사 약속이 많은 금요일 저녁에도 일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버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1만 4500대의 일반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직행 노선이 부족하여 여러 노선을 갈아타거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ilhete Unico'라는 교통카드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에 일정 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탑승한 교통수단에서 요금이 정산된 후 2시간 이내에 최대 4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주요 지하철역에는 Bilhete Unico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시영 버스 시설의 낙후와 장시간 대기가 필요한 점은 외국인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어렵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5월 현재 상파울루 시내버스 요금은 5헤알(1 달러)이다.

택시

브라질 방문 초행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어 택시 이용을 권장한다. 브라질의 택시 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으며, 운전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대부분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사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므로 주소를 적어 줄 필요가 있다. 길에서 임의의 택시를 타는 것보다 'Ponto de Taxi'라고 표시된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Ponto de Taxi'에는 시청에 등록된 차량과 신분이 확인된 운전사만 영업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은 시간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시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나, 일정 속도를 초과하면 거리 기준으로 전환된다. 2024년 기준 기본요금은 6헤알(1.20 달러)이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약 30%의 할증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Uber 같은 호출형 택시 서비스가 일반 택시보다 20~30% 저렴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 전용 호출형 택시 서비스인 Lady Driver와 99 Taxi도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지하철

상파울루 시 지하철은 남북을 잇는 자바과라(Jabaquara)와 투쿠루비(Tucuruvi)간의 20Km 노선(18개 역)과 동서로 달리는 이타께라(Itaquera)-바하 폰다(Barra Funda) 등 5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7호선~11호선은 CPTM관할)

- 1호선: Linha Azul(청색선): Jabaquara - Tucuruvi 구간 운행
- 2호선: Linha Verde(녹색선): Vila Prudente- Vila Madalena 구간 운행
- 3호선: Linha Vermelha(적색선): Corinthians Itaquera - Barra Funda 구간 운행
- 4호선: Linha Amarela(황색선): Butanta - Luz구간 운행
- 5호선: Linha Lilas(보라색선): Capao Redondo; Chacara Klabin 구간 운행
- 7호선: Linha Rubi(루비라인): Luz - Jundiai 구간 운행
- 8호선: Linha Diamante(다이아몬드라인): Julio Prestes - Amador Bueno 구간 운행
- 9호선: Linha Esmeralda(에메랄드라인): Grajau - Osasco 구간 운행
- 10호선: Linha Turquesa(터키석라인) : Rio Grande da Serra - Bras 구간 운행
- 11호선: Linha Coral(산호라인): Estudantes - Barra Funda 구간 운행
- 12호선: Linha Safira(사파이어라인): Calmon Viana - Bras 구간 운행
- 13호선: Linha Jade(옥라인): 과를류스공항 - Eg Gourar 구간 운행
- 15호선: Linha Prata(실버라인) : Vila Prudente - Jardim Colonial 구간 운행

o 하기 링크에 접속하면 상파울루 지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볼 수 있다.

- <https://www.metro.sp.gov.br/sua-viagem/linhas-estacoes/>

o 2024년 11월 기준 상파울루 지하철 1회 탑승 요금은 5.60헤알(1 달러)이다.

리우에는 1호선, 2호선과 4호선 있다. 철도는 완전히 낙후된 상황으로 근교 도시를 잇는 구간을 제외하곤 거의 화물 운송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같은 지점을 가더라도 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불편하다.

- 하기 링크에 접속하면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볼 수 있다.
- <https://www.metrorio.com.br/VadeMetro/MapaInterativo>

다. 통신

핸드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는 신분증, 납세자 번호(CPF), 주소 증명 서류(전화, 인터넷, 전기세 등의 청구서) 제출이 필수다. 개통 절차는 서류 제출 즉시 시작된다. 현지에는 VIVO, TIM, CLARO, Oi 등 네 개의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있다. 고객은 선불과 후불, 두 가지 지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불제는 10~300헤알(2~60 달러)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가입비 없이 전화 수신 위주의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선불제는 후불제에 비해 단말기 비용과 분당 통화료가 높다. 반대로 후불제는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해 사용자가 자신의 통화 시간에 맞춰 패키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브라질 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Vivo, Claro(구Net) 등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5G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어 해외에서 가져온 단말기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여권을 지참하고 Vivo, Claro, Tim 등의 이동통신업체를 방문하여 약 12헤알의 유심칩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신속하게 신규 전화선을 개통할 수 있다. 개통 이후에는 선불 전화카드를 구매하거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한다.

도심 곳곳에서 카페,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 대다수 장소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이메일 확인과 인터넷 사용이 간편해졌다.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 모뎀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인터넷 회사마다 모뎀 이용료가 다르다.

라. 관광명소

○ 예수상(Cristo Redentor - Corcovado)

도시명	리우데 자네이로
주소	Parque Nacional da Tijuca, Cosme Velho, Rio de Janeiro, State of Rio de Janeiro 22241-330, Brazil
운영시간	(월~일) 8:00~16:00
휴무일	없음

<p>명소소개</p>	<p>리우데자네이루 시내 해발 720미터의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예수상은 높이 38미터, 무게 1,100톤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1931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설계로 시민 모금을 통해 완성된 이 상징적인 조형물은 과나바라(Guanabara) 만을 향해 양팔을 벌린 채 서있다. 방문객들은 이 위치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야간에는 조명이 예수상을 비춰 마치 예수가 다시 오신 듯한 인상을 준다. 정상까지는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고 자체운영 기차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여행사등에서 운영하는 패키지를 이용하여 정상까지 방문하는것도 방법중에 하나 이다.</p> <p>입장료 :2024년 11월 기준</p> <p>- 기차: 성인 102헤알(18.30달러), 어린이 67헤알(12달러), 노인(60세 이상) 35헤알(6.25달러), 학생 85헤알(15달러)</p> <p>- 벤: 성인 103헤알(18.40달러), 어린이 71헤알(13달러), 노인(60세 이상) 58헤알(10.35달러)</p>
<p>비고</p>	<p>전화: +55 (21) 2558- 1329</p> <p>웹사이트: https://parquenacionaldatijuca.rio/como-visitar-o-corcovado/ https://www.paineirascorcovado.com.br/ https://ticket.corcovado.com.br/</p> <p>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p>

○ 빵 데 아썬가르 산(Pao de Acucar (Sugar Loaf Mountain))

<p>도시명</p>	<p>리우데 자네이로</p>
<p>주소</p>	<p>Av. Pasteur, 520, Rio de Janeiro, Estado do Rio de Janeiro 22290-255, Brasil</p>
<p>운영시간</p>	<p>(일~토) 08:00~19:50</p>
<p>휴무일</p>	<p>없음</p>
<p>명소소개</p>	<p>원래 인디오의 발음을 흉내 내어 부르게 된 산으로, 빵을 세워놓은 듯한 2개의 바위산(해발 396m)으로 과나바라만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식민지 이전에는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었으며, 1865년 포르투갈 식민지 이후에는 군부대 기지로 사용되며 관측소로도 이용됐었다. 이후 1909년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 1912년부터 운행(케이블카 길이 1.4km)하고 있다. 리우 해안을 가로지르는 13킬로미터의 니페로이(Niteroi)다리와 시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상과는 맞은편에 위치한다. 관광시간은 오전 08:00~19:50이며, 케이블카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p> <p>케이블카 이용료: 2024년 5월 기준</p> <p>성인 185헤알(33달러), 학생 및 노인(60세이상) 92헤알(17달러)</p>
<p>비고</p>	<p>전화: +55 (21) 2546-8433</p> <p>웹사이트: www.bondinho.com.br/</p> <p>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p>

○ 쎄 성당(Catedral Metropolitana de Sao Paulo)

<p>도시명</p>	<p>상파울루</p>
<p>주소</p>	<p>Praca da Se - Se, Sao Paulo - SP 01001-000</p>
<p>운영시간</p>	<p>(일~금) 8:00~19:00 (토요일) 8:00~17:00 (일요일) 8:00~18:00</p>

명소소개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서 시내 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 능력은 대략 8,000명이다. 이 성당은 1914년에 준공해 1954년도에 완공됐으며, 공사 기간 중에 사망한 인부들의 시신과 역대 신부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성당의 둘레는 112m, 폭은 44m, 높이는 66m(탑 꼭대기까지)이다.
비고	전화: +55 11 3107-6832 웹사이트: http://cidadedesaopaulo.com/v2/atrativos/catedral-da-se/?lang=en

○ 이비라뿌에라 공원(Parque do Ibirapuera (Ibirapuera Park))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enida Pedro Álvares Cabral Vila Mariana, Sao Paulo, State of Sao Paulo 04094-050, Brazil
운영시간	(월~일) 05:00~00:00
명소소개	상파울루가 시(市)로 지정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54년 이 공원을 설립했다. 보통 주 중에는 자동차 편을 이용해 출입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브라질 발견 50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져, 지금도 5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15만 평 정도이며, 주말에는 해변가를 찾지 못한 상파울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고	전화: +55 11 5574 5045 웹사이트: https://parqueibirapuera.org/

○ 이과수 폭포(Cataratas do Iguacu)

도시명	이과수
주소	Rodovia BR 469 - Km18, Foz do Iguacu, State of Parana 85855-750, Brazil
운영시간	(일~토) 09:00~17: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상파울루 시에서 1,348km 지점에 있는 폭포로, 버스로 약 16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이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국 간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a) 주 포스 두 이과수(Foz Do Iguaco) 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입장료: 2024년 11월 기준 외국인 - 100헤알(18달러), 내국인 및 Mercosul - 91헤알(16.25달러)
비고	전화: +55 45 3521 4400 웹사이트: http://www.cataratasdoiguacu.com.br/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엔비 스테이크(NB Steak)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195-0518
주소	Al. Santos, 322, Paraiso, Sao Paulo - SP, BRasil
가격	약 300헤알
영업시간	(월~목) 12:00~16:00, 18:00~23:00 (금~토) 12:00~23:30 (일) 12:00~21:00
소개	주요 메뉴: 브라질 전통 고기 바베큐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포고 데 샤웅(Fogo de Chao)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5056-1795
주소	Av. Moreira Guimaraes, 964, Moema, Sao Paulo, SP, Brazil
가격	약 300헤알
영업시간	(일~토) 12:00~23:30
소개	주요 메뉴: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아서원(Asawon)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326-9488
주소	Rua Correia de Melo, 166 - Bom Retiro, Sao Paulo - SP, 01123-020
가격	약 60헤알/1인
영업시간	(월~토) 점심 11:30~15:00, 저녁 17:30~21:30
소개	주요 메뉴: 중국 요리,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잡탕밥 참고: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요리 제공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아이조메(Aizome)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251-5157

주소	Alameda Fernao Cardim, 39 - Jardim Paulista, Sao Paulo - SP, 01403-020
가격	약 200헤알
영업시간	(월~토) 12:00~14:30, 18:30~23:00
소개	주요 메뉴: 초밥/사시미, 우동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o 조선갈비(Churrascaria Cho sun Gal bi Liberdade)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277-1087
주소	R. da Glória, 663 - Liberdade, São Paulo - SP, 01510-001
가격	약 200헤알
영업시간	(월~토) 11:30~14:30, 17:30~21:00
소개	주요 메뉴: 고기 무한리필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o 빚고을(Bi Col)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11) 3207-9893
주소	R. Jose Getulio, 422 - Liberdade, Sao Paulo - SP, 01509-001
가격	약 150헤알/1인
영업시간	(월~토) 12:00~14:30, 17:30~21:30
소개	주요 메뉴: 불고기, 찌개류, 냉면, 생선구이 등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o 다래(Restaurante Dare)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11) 3337-2533
주소	R. Correia de Melo 54,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가격	약 100헤알/1인

영업시간	(월~토) 11:30~14:45, 17:30~20:45
소개	주요 메뉴: 한식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바다횃집(Sashimi do Mar)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329-9825
주소	Rua Prates, 553, Bom Retiro, Sao Paulo, SP, Brasil
가격	약 70~200헤알
영업시간	(월-일) 11:30~14:00, 17:30~21: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전통 한식 횃집 주요 메뉴: 회, 해물탕, 보쌈, 순두부, 등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래디슨 호텔 파울리스타 상파울루(Radisson Hotel Paulista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lameda Santos, 85, Vila Mariana, São Paulo, CEP 01419-100, Brasil
전화번호	(55-11) 2627-1000
홈페이지	https://www.radissonhotels.com/pt-br/
숙박료	1200~2044헤알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힐튼 상파울루 모룸비(Hilton Sao Paulo Morumb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Das Nacoes Unidas, 12901, Zip 04578-000,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2845-0000

홈페이지	http://www1.hilton.com
숙박료	3000~3500헤알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르네상스 상파울루 호텔(Renaissance Sao Paulo Hotel)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lameda Santos, 2233, Zip 01419-002,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3069-2233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br/hotels/travel/saobr-renaissance-sao-paulo-hotel/
숙박료	3500~4100헤알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티볼리 모파헤지 상 파울루(Tivoli Mofarrej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lameda Santos, 1437, Cerqueira César, Zip 01419-001, Sã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3146-5900
홈페이지	http://www.tivolihotels.com
숙박료	2310~4305헤알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 그랜드 하얏트 상파울루(Grand Hyatt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das Nações Unidas, 13301, Brooklyn, Zip 04578-000, Sã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2838-1234
홈페이지	http://saopaulo.grand.hyatt.com
숙박료	2600~3900헤알
비고	1달러=5.60헤알(2024년 11월 기준)

<자료원 : Hotels.com, Booking.com>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권총 강도 및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인 가운데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현지인과 불필요한 시비 및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 시에는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목걸이나 시계 등 고가품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거나 길을 걸으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동안 소매치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핸드폰을 훔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역이 열악한 주 정부 재정문제로 인한 치안력 약화와 경제 여건 개선 지체로 인하여 조직·생계형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동 지역을 1단계 여행 유의(남색경보)지역에서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지역으로 1단계 상황 조정하였다. 리우 지역 여행자나 출장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도를 만났을 때는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확인시킨 뒤 주머니를 가리키며 돈을 꺼내겠다는 제스처를 보인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천천히 꺼내면서 지갑을 완전히 꺼내기 전에 지갑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킨 뒤 꺼내어 돈을 건네준다.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는 것은 위험하다. 참고로 강도를 당할 것에 대비해 100~200헤알(20~40 달러) 정도가 든 별도의 지갑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580-086으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다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총영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 수수료 납부 후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 수수료 납부 후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 193 (Corpo de Bombeiros ; 소방대)

- 경찰 : 190 (Polcia Militar ; 군경-일반적인 범죄신고)
- 구급차 : 192 (Ambulância)
- 연방경찰 : 194 (Polcia Federal)
- 민경 : 197 (Polcia Civil ; 범죄수사)
- 연방교통경찰 : 191 (Polcia Rodoviria Federal)
- 주교통경찰 : 198 (Polcia Rodoviria Estadual)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브라질은 치안 문제로 인해 외국인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다. (Moema, Itaim Bibi, Jardins, Morumbi, Ibirapuera, Vila Olimpia, Pabambi, Aclimacao, Lapa, Mooca, Santana등)

*Bom Retiro는 한인타운으로 다수의 한국마켓 및 식당등이 밀집해 있다.

임대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30개월이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기간이다. 계약 해지 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1~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 12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거주가 일반적이다. 임차인은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Condominio)와 토지가옥세(IPTU)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비에는 수도세 및 가스 요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상파울루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Lello, Rossi, Lopes Imoveis, Paulo Leardi, Coelho da Fonseca 등과 같은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임차인은 가격, 교육 여건, 치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을 위한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도 활동하고 있어, 언어 장벽 없이 주택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Zap, Quinto andar, Viva Real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는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부동산업체, 집주인, 중개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매물을 올려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주나 중계인과 연락하여 직접 매물을 볼 수 있다.

전화

가정에서 유선전화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인터넷, TV, 유선전화 및 휴대폰 요금을 묶은 패키지 플랜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로 Vivo, Claro 를 통해 가입하여 사용한다.

- Vivo Fixo Basico: 기본요금 42.52헤알(8 달러)

- 기본 요금을 납부하여 유선전화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케이블 채널, 핸드폰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상세정보는 Vivo 홈페이지(<https://vivo.com.br/para-voce/produtos-e-servicos/para-casa/telefone-fixo/telefone-fixo-planos-populares>)에서 열람 가능하다.

- Claro Ilimitado Brasil: 기본요금 35헤알(6.25달러)

- 기본 요금을 납부하여 유선전화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케이블 채널, 핸드폰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상세정보는 Claro 홈페이지(<https://www.claro.com.br/fone>)

(2024년 11월 기준 환율: 1달러= 5.60헤알)

전압/플러그

브라질 각 지역의 전압 사용 표준은 상이하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60Hz의 110V 또는 220V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살바도르와 마나우스 시에서는 127V가, 헤시페와 브라질리아 등지에서는 주로 220V가 사용된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가전제품 업체들은 110/220V 겸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두 가지 전압에 맞는 독립적인 모델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상파울루에서 220V 전용 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적절한 전기 코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설치해야 한다. 브라질의 전기 코드는 3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는 한국산 제품과 규격이 다르므로 변환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식수

브라질에서는 석회질 함량이 높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미네랄워터를 구매하여 마셔야 한다. 음식점에서도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아 별도 주문이 필요하다. 미네랄워터를 주문할 때 '아과 썸 가스(gua sem gs)'라고 하면 탄산이 없는 일반 물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탄산수를 원할 경우 '아과 콩 가스(gua com gs)'라고 해야 한다. 미네랄워터의 가격은 용량과 구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500ml 기준으로 5~8헤알(0.9~1.40 달러) 사이이다.

(2024년 11월 기준 환율: 1달러= 5.60헤알)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는 Audi, BMW, Chevrolet(General Motors), Chrysler, Citroen, Crosslander, Fiat, Honda, Hyundai, Jaguar, Jeep, Kia, Land Rover, Lexus, Mercedes Benz, Mitsubishi, Nissan, Peugeot, Porsche, Renault, Subaru, Toyota, Troller, Volkswagen, Volvo 등 다양한 메이커가 진출해 있다.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GM, Fiat, Volkswagen 등은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며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오랜 기간 진출했던 Ford는 2021년 초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80% 이상이 알코올과 휘발유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Flex 차량이며, 최근 아파트, 쇼핑센터, 호텔 내 전기 충전소 확대로 전기차량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대개 선호하는 브랜드의 판매대리점(Concessionaria)을 방문하며, 중고차는 브랜드 별 대리점이나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전문 판매점에서 구입한다.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장기 할부 구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 할부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최종 차량 가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차량가격

브라질 자동차의 경우, 국산은 약 7만~20만 헤알(1만4000~4만 달러)이며 수입차는 수십만~ 수백만 헤알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다.

2023년기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자동차 모델 top 10은 아래와 같다.

- 1) Fiat Strada : 11만4990 헤알(2만533 달러)
- 2) Volkswagen Polo : 9만0900헤알(1만6232 달러)
- 3) Chevrolet Onix : 9만3765헤알(1만6743 달러)
- 4) Hyundai HB20 : 8만7390헤알(1만5605 달러)
- 5) Chevrolet Onix Plus : 9만9490헤알(1만7766 달러)
- 6) Fiat Mobi : 7만2990헤알(1만3034 달러)
- 7) Volkswagen T-Cross : 10만1315헤알(1만8092달러)
- 8) Fiat Argo : 8만4990헤알(1만5177달러)
- 9) Chevrolet Tracker : 11만9900헤알(2만1410달러)
- 10) Hyundai Creta : 18만990헤알(3만2320달러)

(2024년 11월 기준 환율: 1달러= 5.60헤알)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증을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재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의 교통국(DETRAN)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현지 공증번역사(TRANADUTOR JURAMENTADO)에게 포어 원문으로 번역과 공증을 의뢰한 후 교통국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 신청 후 발급까지는 대략 3주일이 소요된다. 대행사(Despachante)를 통해 신청할 경우 약 500헤알(100달러)이 들며, 이용자는 교통국 방문의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지에서 처음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 이론교육 45시간, 운전 실기 수업 20시간, 시뮬레이션 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면허 취득 과정은 대략 두 달이 걸리고 비용은 평균 2,000~3,000헤알(357~600달러)로 예상된다. (2024년 11월 기준 환율: 1달러= 5.60헤알)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ITAU
 - 브라질 시중 은행 중 하나로 약 5,000개 지점 보유, 해외 21개국에 지점 보유
 - www.itau.com.br
- BRADESCO
 - 브라질 시중 은행 중 하나로 약 4,800개 지점 보유
 - www.bradesco.com.br
- BANCO DO BRASIL 은행
 - 브라질 국영 은행 중 하나로 정부가 은행 지분의 54% 보유
 - www.bb.com.br
- Caixa Economica Federal
 - 브라질 국영 은행 중 하나로 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 자금 대출 등 업무
 - www.caixa.gov.br
- Santander
 - 스페인계 시중 은행으로 1982년에 브라질에 진출
 - www.santander.com.br
- Nu Bank
 - 인터넷은행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
 - www.nubank.com.br
- 한국계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이 진출해 있음.

계좌 개설방법

브라질의 치안 불안으로 대다수 시민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직불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할부 판매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자 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21년부터 브라질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PIX'라는 무료 전자 지불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PIX를 통해 사용자는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된 당좌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계좌 개설을 위해 Itau, Santander, Bradesco 등의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Nubank, C6, Inter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납세자 번호(CPF), 주소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달러화 계좌도 Itau, Santander, Bradesco 등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송금이나 달러 인출 시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venues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기간 (2024년 7월~2025년 6월) - 초등학교 등록금: 28,000헤알/년(5000달러) 수업료: 15,700헤알/월(2803달러) - 중학교 등록금: 28,000헤알/년(5000달러) 수업료: 15,700헤알/월(2803달러) - 고등학교 등록금: 28,000헤알/년(5000달러) 수업료: 15,700헤알/월(2803달러)
홈페이지	https://www.avenues.org/pt/sp/

o Graded School- Associacao Escola Graduada de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등록금: 1,560헤알(312달러) o 수업료(2024년 7월 ~ 2025년 6월 까지) - Lower School(K3 ~ Grade 5): 12,000헤알/월(2142달러) - Upper School (Grades 6 to 12): 14,970헤알/월(2673달러)
홈페이지	http://www.graded.br
비고	등록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만약 3월에 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1, 2월 학비도 지불해야 한다. 통상 미국제 학교가 상파울루 외국인 학교 중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 입학 시 시험(test)이 엄격하고 빈 자리가 많지 않다.

o St. Pauls School

도시명	상파울루
-----	------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4년 7월~2025년 6월) - 초등학교 등록금: 40,600헤알/연(7250달러) 수업료: 10,541헤알/월(1882달러) - 중학교 등록금: 28,422헤알/연 (5075달러) 수업료: 10,541헤알/월(1882달러) - 고등학교 등록금: 12,182헤알/연(2175달러) 수업료: 13,314헤알/월(2377달러)
홈페이지	https://www.stpauls.br/
비고	1926년2월 설립된 영국국제 학교

○ Chapel School - Escola Maria Imaculada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시험비: 800헤알 (142달러) ○ 등록금 - Pre I: 7,494 헤알(1338달러) - Pre II to 6th grade: 7,695 헤알(1374달러) - 7th to 12th grade: 8,730 헤알(1558달러) ○ 학비 (2024년, 신입생 기준) - Pre I : 8,618 헤알/월(1539달러) - Pre II to 6th grade: 8,849 헤알/월(1580달러) - 7th to 12th grade: 9,849헤알/월(1758달러)
홈페이지	http://www.chapelschool.com
비고	가톨릭 재단 학교로 1947년 상파울루에 설립됐으며, 약 700명의 학생이 있다.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 Colegio Bandeirantes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2024, 신입생 기준) - 중학교(6~8학년): 5,402헤알/월(964 달러) - 중학교(9학년): 5,530헤알/월(987 달러) - 고등학교(1~3학년): 5,839헤알/월(1052달러)
홈페이지	http://colband.net.br/

○ Colegio ETAPA

도시명	상파울루
-----	------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2022년, 신입생 기준) - 초등학교(1~5학년): 3,430.00헤알/월(612달러) - 중학교(6~9학년): 4,569.00헤알/월(816달러) - 고등학교(1~3학년): 4,569.00헤알/월(816 달러)
홈페이지	https://www.colegioetapa.com.br/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 Hospital Israelita Albert Einstein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Albert Einstein, 627 - Jardim Leonor, Sao Paulo - SP, 05652-900
전화번호	+55 (11) 2151-123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einstein.br/en/Pages/Home.aspx

○ Hospital Sao Luiz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ua Engenheiro Oscar Americano, 840 - Jardim Guedala, São Paulo - SP, 05605-050
전화번호	+55 (11) 3093-11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rededorsaoluiz.com.br/

○ Hospital Paulistan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Martiniano de Carvalho, 741 - Bela Vista, Sao Paulo - SP, 01321-001
전화번호	+55 (11) 3016-1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hospitalpaulistano.com.br/

○ Hospital e Maternidade Pro Matre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Sao Carlos do Pinhal, 139 - CEP: 01333-001 - Bela Vista - São Paulo - SP

전화번호	+55(11) 3269-2233
진료과목	산부인과
비고	https://www.promatre.com.br/

◦ Hospital Sirio Libanes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ua Dona Adma Jafet, 115 - Bela Vista, Sao Paulo - SP
전화번호	+55(11) 3394-02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hospitalsiriolibanes.org.br/

◦ 나사렛 종합병원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Newton Prado, 88 - Bom Retiro, Sao Paulo - SP
전화번호	+55(11)3337-670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한국인 운영 병원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Shopping Patio Paulista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Treze de Maio, 1947 - Bela Vista, São Paulo
홈페이지	https://www.shoppingpatiopaulista.com.br/
비고	상파울루 시내 백화점(무역관 근처) 영업시간 ◦ 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14:00~20:00

◦ Shopping Cidade Jardim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Magalhães de Castro, 12.000 - Cidade Jardim, São Paulo
홈페이지	https://cidadejardimshopping.com.br/
비고	상파울루 시내 최고급 명품 백화점 영업시간 ○ 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14:00~20:00

○ JK Iguatem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Pres. Juscelino Kubitschek, 2041 - Vila Olímpia, São Paulo
홈페이지	https://iguatemi.com.br/jkiguatemi/
비고	상파울루 시내 명품 백화점 영업시간 ○ 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14:00~20:00

○ Shopping Iguatem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Brig.Faria Lima 2232, Jd. Paulistano, SP
홈페이지	https://iguatemi.com.br/saopaulo/
비고	상파울루 시내 고급 백화점 영업시간 ○ 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14:00~20:00

○ Shopping Morumb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Roque Petroni Jr. 1089, Vl. Gertrudes, SP
홈페이지	http://www.morumbishopping.com.br/
비고	상파울루 시내 고급 백화점 영업시간 ○ 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14:00~20:00

○ Shopping Higienopolis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Higienopolis 618, Higienopolis, SP
홈페이지	https://iguatemi.com.br/patiohigienopolis/
비고	상파울루 시내 Iguatemi그룹 쇼핑 영업시간 ○ 월~토요일: 10: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14:00~20:00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오투기 슈퍼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Tres Rios, 251,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및 반찬, 일용잡화 판매
비고	전화: (55-11) 3326-1419

○ 롯데슈퍼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Prates, 354,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및 반찬, 일용잡화 판매
비고	(55-11) 3227-1914/ 3229-6610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Confraternização Universal	2024-01-01	2024-01-01
상파울루시 창립기념일	2024-01-25	2024-01-25
2024 카니발 휴일	2024-02-12	2024-02-12
2024 카니발 휴일	2024-02-13	2024-02-13
2024 카니발 휴일(오전)	2024-02-14	2024-02-14
Paixao de Cristo	2024-03-29	2024-03-29

Tiradentes	2024-04-21	2024-04-21
Dia de Trabalhadores	2024-05-01	2024-05-01
Corpus Cristi	2024-05-30	2024-05-30
Revolucao Constitucionalista	2024-07-09	2024-07-09
Independence Day of Brazil	2024-09-07	2024-09-07
Nossa Senhora de Aparecida	2024-10-12	2024-10-12
Finados	2024-11-02	2024-11-02
Proclamacao da Republica	2024-11-15	2024-11-15
흑인의 날	2024-11-20	2024-11-20
Natal	2024-12-25	2024-12-25

10. KOTRA 무역관 안내

○ 상파울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Alameda Santos 700, 8th floor. Edificio Trianon Corporate - Cerqueira Cesar, Cep. 01418-100, Sao Paulo, SP, Brazil
- 전화번호: 55-11-3175-3030
- 이메일: saopaulo@kotra.com.br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418>

공항-무역관 이동

- Guarulhos 공항 -> 무역관
 - 버스: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으며 Paulista 거리 인근에 위치한 Rua Sao Carlos do Pinhal, 424, Bela Vista 앞에 하차한다. 호텔에서 무역관까지는 650m로 도보로 9분 거리이다.
 - 택시: 공항 출구에 위치한 택시 승강장에서 하차 위치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 가능하다. 무역관까지 약 180헤알(32달러)이 소요된다.
 - 기타: 공항 입국장에서 우버(uber) 택시 호출이 가능하다. 우버 이용시 공항에서 KOTRA 상파울루 무역관까지는 약 140~160헤알(25~30달러) 정도 소요된다.
 - Congonhas 공항 -> 무역관
 - 택시: 공항 출구에서 택시 탑승이 가능하며, 무역관까지 약 80헤알(16달러)이 소요된다.
 - 기타: 우버(uber) 택시 호출이 가능하며, 무역관까지 약 65(13달러)헤알이 소요된다.
 - 무역관 건물 도착 후
 - 무역관 방문 전 사전에 신분증 등록 링크를 받아 신분증 번호 및 이름을 등록하고 QR코드를 다운 받은후 출입 가능하다.
 - 사전에 링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로비에 있는 키오스에 신분증 번호 및 이름을 등록하고 승인 절차후 QR코드가 프린트 된 종이를 받아 출입한다.
- * 간소한 절차 및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Tattoo Week	2025-01-24 ~ 2025-01-26	São Paulo/SP	Acelera XYZ
Home & Gift	2025-02-18 ~ 2025-02-21	São Paulo/SP	ABUP
EXPO REVESTIR	2025-03-10 ~ 2025-03-14	São Paulo/SP	NürnbergM esse Brasil
Smart City Expo Curitiba	2025-03-25 ~ 2025-03-27	Curitiba/PR	ICITIES
YES MÓVEL SHOW SÃO PAULO	2025-03-24 ~ 2025-03-27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FEICON BATIMAT	2025-04-08 ~ 2025-04-11	São Paulo/SP	Rxglobal
INTERMODAL SOUTH AMERICA	2025-04-22 ~ 2025-04-24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LAAD Defense&Security Rio	2025-04-01 ~ 2025-04-04	Rio de Janeiro/RJ	Creative events brazil
IFAT Brasil	2025-06-25 ~ 2025-06-27	São Paulo/SP	Messe Muenchen do Brasil
FEIMEC	2025-05-06 ~ 2025-05-10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Hospitalar	2025-05-20 ~ 2025-05-23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Exposec	2025-06-10 ~ 2025-06-12	São Paulo/SP	ABESE
FCE PHARMA	2025-06-09 ~ 2025-06-11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FCE COSMETIQUE	2025-06-09 ~ 2025-06-11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EXPO Empreendedor 2024	2025-07-25 ~ 2025-07-26	São Paulo/SP	Minds
FUTURE Print	2025-07-16 ~ 2025-07-19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Eletrolar show	2025-07-18 ~ 2025-07-21	São Paulo/SP	Grupo Eletrolar
FIEE Smart Future	2025-09-09 ~ 2025-09-12	São Paulo/SP	Rxglobal

FIPAN	2025-07-22 ~ 2025-07-25	São Paulo/SP	Seven
Escolar Office Brasil	2025-08-03 ~ 2025-08-06	São Paulo/SP	Franca feiras
Concrete show	2025-08-19 ~ 2025-08-21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Food Ingredients South America	2025-08-26 ~ 2025-08-28	São Paulo/SP	Informa AllSecure
Fenasucro & Agrocana	2025-08-12 ~ 2025-08-15	Sertão zinho/SP	Rxglobal
Pet South America	2025-08-13 ~ 2025-08-15	São Paulo/SP	NürnbergMesse Brasil
CONARH	2025-08-27 ~ 2025-08-28	São Paulo/SP	ABRH BRASIL
The Smarter South America	2025-08-26 ~ 2025-08-28	São Paulo/SP	Aranda eventos
Beauty Fair	2025-09-08 ~ 2025-09-10	São Paulo/SP	Beauty fair
FEBRAVA	2025-09-09 ~ 2025-09-12	São Paulo/SP	Rxglobal
Equipotel	2025-09-16 ~ 2025-09-19	São Paulo/SP	Rxglobal
Healthcare Innovation Show	2025-10-01 ~ 2025-10-02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ISC Brasil	2025-09-02 ~ 2025-09-04	São Paulo/SP	Rxglobal
In-cosmetics Latin America	2024-09-25 ~ 2024-09-26	São Paulo/SP	Rxglobal
ABAV Expo	2025-10-08 ~ 2025-10-10	Rio de Janeiro/RJ	ABAV - Associação Brasileira de Agências de Viagens
Analítica Latin America 2024	2025-09-23 ~ 2025-09-25	São Paulo/SP	NürnbergMesse Brasil
FUTURECOM	2025-09-30 ~ 2025-10-02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ACAPS TRADE SHOW	2025-09-16 ~ 2025-09-18	Serra/ES	ACAPS Associação capixaba de supermercados

Expo prote¸ão e emergência 2024	2025-08-26 ~ 2025-08-28	São Paulo/SP	Prote¸ão, publica¸ão e prote¸ão de eventos
Seafood Show Latin America	2025-10-22 ~ 2025-10-24	Jardim das Laranjeiras São Paulo	Francal feiras
BRAZIL WIND POWER	2025-10-22 ~ 2025-10-24	São Paulo/SP	Informa Markets
RD Summit	2025-11-06 ~ 2025-11-08	São Paulo/SP	RD Station
ABRAFATI SHOW	2025-09-23 ~ 2025-09-25	São Paulo/SP	NürnbergM esse Brasil
Car Wash Expo	2025-11-26 ~ 2025-11-28	São Paulo/SP	NS Group
CCXP	2025-12-04 ~ 2025-12-08	São Paulo/SP	CCXP EVENTOS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